朝鮮日報 夕刊

東歐不可侵條約 佛蘇間意見一致

獨波兩國을包含식히기로 莫斯科會談의成果

【莫斯科十五日發聯合】라발佛外相은 前後三日間莫斯科에서 스탈린書記長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과 會談協議한 結果드듸어 獨波兩國政府를 包含하는 東歐不可侵協約案을締結하기로 決定하엿다 右不可侵協約案의 公式은 如左하다

一、締約各國政府는 挑撥을受하지안코는 絶對로 侵略行爲에 出하지안는 또 挑撥을 受한境遇에는 直時締約各國政府와 協議하기로함

一、締約各國政府는 內容의 如何를 不問하고 侵略國에對해서는 何等 援助를 與하지아니키로함

一、締約國의 範圍는 東歐 로카르노協約案에 豫想된 各國政府全部를 網羅하고 獨波兩國政府도 當然包含시키기로함

但締約國政府는 不可侵條約과 倂行的으로 相互援助條約을 締約하는것을 妨止치아니함 新協約案은 東歐로카르노條約案에對한 獨波兩國政府의 反對에 鑑하야 考案된代案인데 萬一의 境遇에 果然 實際的効果를 發揮할수잇슬는지 相當히 疑問이나 所謂 集團的 安全保障機構를 確立하야 獨波兩國政府의 參加下에 歐羅巴政局의 全般的平和를 實現하야 切迫한 東歐羅巴의 空氣를 緩和하는 重大役割을 가진것으로보이다 히틀러總統은 相互援助義務를 包含하지아니한 不可侵協約案에는 이미 同意를 表明하엿다고 傳하므로 新協約案에 對하야 구타여 異論을 唱道할 理由도 업슬것이라고 豫想된다

라발佛外相

리트비노프蘇外相

不侵略을協議코 被侵略國엔共同援助

佛蘇共同콤뮤니케

【莫斯科十五日發聯合】라발外相의出發에압서 佛國代表部와 蘇聯政府는 共同으로 如左한 莫斯科會談의 成果를 要約한公式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佛蘇兩國政府는 相互援助條約을締結하엿는데 相互援助條約이 成立되더라도 東歐局地協約案의 必要는 依然히 조금도 減退되지아니하므로 間斷업시 右協約案實現을 求하지안으면안된다 이實情에 鑑하야 佛蘇兩國政府는 不侵略協議와 被侵略國에 對한 共同援助를 基礎로 압서 豫言한 締結國을 包含한 東歐局地條約案의 達成을 便宜 하다고 思惟한다 이미 相互的 援助條約에 依하야 國際平和의 强化를 期한以上 必要한 手段을 講究하는것은 佛蘇兩國政府의 義務이다 共產黨書記長 스탈린氏도 佛國政府의 國防政策을 充分히 諒解하고 佛國政府가 安全保障에 必要한水準의國軍을 維持하는것에 全幅의支持를 表明하엿다 全歐洲의 物質的 情神的利益을增進함에는먼저 諸國이諸國間의信賴를回復하지안으면안된다는 各國政府의支持下에 平和를 增强하고 政情의 回復을 圖하는以外에 方策은업다 佛蘇兩國政府代表 今回의會談에서 平和의增强政策의 改善을期하기爲해서는 如何한對策도 閑却하지안켓다는旨의 決意를確認하엿다

英獨海軍會商延期

【電通伯林十五日發】獨逸政府가 十五日 特別議會召集과 宣言審

伊의黑人帝國侵略은 傍若無人的行動

라인左岸의非武裝條項도廢棄宣言?

豫想되는爆彈宣言內容

히틀러總統

【伯林十五日發聯合】聯盟理事會가問責決議案을 採擇한以來 前後一個月 異常한 沈默을繼續하고잇던 히틀러總統은 드듸어來二十一日 國會를招集하고所謂第二次爆彈宣言을 投擲하기로되엇는데 右宣言에서는 軍備擴張에 狂奔하는歐洲各國政府에對하야 그態度를 指摘하야 獨逸政府의再軍備要求는 全혀不得已한것이란것을 强調할것으로 보이고또佛國政府가 입으로平和保障을 唱道하면서 蘇聯政府 其他의衛星各國軍을 動員하야 軍事同盟에依하야 獨逸包圍를 結成하고잇는것을難詰하고黑人帝國侵略에全혀 傍若無人的 行動을하고잇는 뭇솔리니首相에게 挑戰狀을 投擲할것이라고 解釋된다 또伯林外交界에서는 히틀러總統이 베르사이유條約第十二條以下 라인左岸의 非武裝撤廢를 提議하야 歐洲政局에 新旋風을 捲起할것이아닌가고 念慮하고잇다

爆彈宣言審議의 獨聯邦特別議會

廿一日開會키로確定

【電通伯林十五日發】히틀러總統 어 聯盟理事會의 決議에對한獨逸의 具體的活動으로公布하려하는 軍事法案審議를爲하야 召集할 聯邦特別議會는 五月二十一日午後八時 開會하기로確定하엿다 또 獨逸政府는右特別議會召集에 際하야 特別議會의 議案은 獨逸聯邦政府의 宣言審議를 包含한것이라고 發表하엿다 卽 獨逸의對聯盟 第二次爆彈宣言을 意味하는것으로 低氣壓은 이제徘徊하게始作하야 中歐政局은依然 緊張하게되엿다

加奈陀總督後任 존·베커氏로決定

【電通倫敦十六日發】英國政府公表 加奈陀自治領總督後任에는 존·베커氏가就任하기로決定하엿다

呂宋島共產黨 警察署를等慘殺

【電通마닐라十六日發】呂宋島

딜크센獨大使의 朝鮮內視察日程

昨日入京 朝鮮호텔에 滯在中인 駐日獨大使 딜크센博士는 十八日 午前八時二十分 京城發金剛山探勝에 赴하야 二十一日 外金剛으로부터 元山에나와 同地에서四日間滯在、二十四日 午後二時十五分 京城着 同日午後三時半發『노조미』號로 平壤에向하고 二十六日午後十時三十六分平壤發 大邱、慶州、佛國寺등을經하야 二十八日 午後十一時半釜山發連絡船으로 歸任할터이다

航空第一主義 十八幹線을新設

遞省航空十個年計畫

【東京電話聯合】航空第一主義를 標榜하는 床次遞相을 迎하야 航空國策에 進出한 遞信省航空局에서는 十年度豫算에 그一端을 보엿는데 다시 昭和十一年度부터 十個年計畫으로서 北은 樺太로부터 南은 南洋까지 各地主要都市를 連結하는 幹線十八線 一萬五千키로가되는 定期코스를 設定하기로 決定하고 床次遞相의 決裁를 經하야 新設을본 航空事業調查會에 諮하야 그承諾을 得한後 이에 要하는 豫算總額 二億圓을 來議會에 提出하고 協贊을 求하기로되엇다 右十八線中 福岡—臺北線, 東京—파라오線은 十年度豫算에 計上되어 이미 着着準備를 進行하고잇는데 他十六線은 全然新計畫이라 이것을爲하야 航空局에서는 地方官民과 協力하야 離着陸場不時着陸場等의 設備를 急히하기로 되엇는데 이에關한 一切의 空輪事業은 모다 民間航空會社로하야곰 當케할터이다

話題解說 필수드스키

波蘭陸相 필수드스키元帥가 去十二日에 長逝하엿다는것은 이미 報道된바이어니와 昨今의 通信은 그의 逝去로 因하야 歐洲政局이 今後一層 多事多端하리라고까지 傳하고잇다 이때에 우리는 그가어떠한人物이엇든지 그略歷이라도 紹介하려한다。

◇

요셉·필수드스키(Joseph Pilsudski)氏는 一八六七年十二月五日 리트와니아의 위르나臨스톨이란곳의 名家에서 呱呱의聲을울렷다。그때의리트와니아는 露帝國의 領域이엇든때 그가出生하기조금前에 필수드스키一家는 波蘭獨立運動에 加擔하야 그家産의 거의全部를 沒收당하엿다。이러한 環境속에서 자라나게된 어린少年 필수드스키의 帝政露西亞의 苛酷한 壓制에 對한 反抗心은 胸中에 깁히 새겨젓다。學生時代에도 社會主義的團體를 組織하야 退校를當한일도 잇섯고 革命運動을 繼續하엿다 그리하야 一八八七年에는 露帝暗殺에 關係하엿다는 罪目으로 西伯利亞에 五年間 流刑을 當한일도 잇섯다。日露戰爭當時에는 渡日하야 日本朝野의 援助를 求하야 露國後方攪亂을 爲하야 百方으로 奔走하엿다。一九一四年世界大戰이 勃發하자 波蘭軍을 引率하고 墺軍에 加擔하엿스나 墺國이 波蘭獨立援助의 意思가 업는것을 看破하고 그陣營을 버리고 一九一六年에 波蘭의 獨立援助의 保障을 얻을目的으로 獨逸軍에 加하엿스나 獨政府에 對한 忠誠誓約을 拒絶하엿기때문에 監獄에 갓치게 되엿다。그동안에 「베르사이유」의 結果 英佛伊三國이 또한支持하야 一九一八年十月六日 波蘭獨立을 宣言하게되엿다

◇

監獄에서 解放되어 필元帥는 國民的英雄으로 왈소우에 凱旋하야 곳新興國의 首班에 推戴되엇다。그後國境擴張에 多大한功績을남기고 드듸어 隱退하야 閑暇한生活을 하게되엿스나 그後 政爭이 激烈함을 보고 참지못하야 一九二六年五月 手兵을 引率하고 首都에 出現하야 쿠데타를敢行하엿다。後繼友모찌스키氏를 大統領에 안치고自身은 陸相의 位에 잇스면서 內政外交의 全分野에 君臨하엿다。一九三○年五月의 總選擧以後에는 國會에 絶對多數를 制하야 完全한獨裁政治를 해왓고 去四月에는 新憲法을 制定하야 大統領에게 廣範圍의 獨裁權을 賦與하게 하엿는데 自身이 大統領에 出馬하리라고 傳하더니 드듸어 이루지못하고 長逝하엿다 이와가티 그의 一生은 波蘭의 獨立과 一生이엇스니 新興波蘭을 爲하야 업지못할至寶的存在이엇다。

八面鋒

一邦에 에디오피아를 戰滅하지못하든 伊太利가 突然平和工作을 開始。

◇ 歐洲形勢에 不安이떠도는까닭도잇지마는 戰爭疲勞가 아닐것을 깨다름인가。

◇ 政友派 退陣의 新黨運動은 意外로遲遲할뿐더러 게다가 高橋君의 贊成으로 남게를어든모양。

◇ 離婚하고나간 女人이 보아란듯시 새男便에게 改嫁가는 꼴로 본다면 雙方에 모다 煩悶만흘것을。

◇ 病臥中이든 一木樞相, 病은나어도 職務는 堪當할수업서, 畢竟辭職하리라고。

◇ 內閣의『뿌레인』工作에 不安이 생긴다면, 岡田丸도 順風과는 因緣이멀든모양。

林陸相渡滿辭令

【電通東京電話】林陸相渡滿에對하야 今日如左히 辭令이잇섯다

陸軍大臣兼對滿事務局總裁 林銑十郞

命朝鮮關東州及滿洲國에出張被仰付

對滿事務局事務官 增田甲子七

命朝鮮關東州、滿洲國及中華民國出張

內閣書記官兼法制局參事官 橫溝光暉

命朝鮮、關東州、滿洲國出張

北樺太蘇官憲突然히 野菜類輸入禁止

日本人勞働者의死活問題로 外務省에서嚴重抗議

【電通東京電話】在알렉산드롭스크緒方總領事로부터 十五日外務省에 達한 公電에依하면 同地官憲은 去二月二十日蘇聯人民委員會의決議에基하야 十三日馬鈴薯、野菜類의輸入禁止令을 發布하엿다 北樺太에는 現在二千七百名의日本人勞働者가잇는데 每月馬鈴薯二萬五千瓩、玉葱五千瓩을 必要함으로 右禁止令을 强行하면日本人勞働者는 飢死할수박게업슴으로 外務省에서는 直時莫斯科政府와地方官憲에對하야 嚴重抗議하기로되엿다

一木樞府議長 結局辭任?

風說이잇던 一木樞府議長은 最近 病이完快한것가티傳하야 오랫동안 缺席하엿던 樞府本會議에도 最近 出席하기로 되어잇던바 又復 病이 아직 完快되지아니하엿다는 理由로 缺席을 繼續하고잇다 그런데 들은바에依하면 同議長의 病은 胃潰瘍으로 多少의 出血이잇서 今日까지의 病狀으로서는 좀더 當分靜養을 要할모양 이라고하니 機關說에는 關係가 업다하더라도 結局 痼疾때문에 辭任하게 될것이아닌가 觀測된다。

【電通東京電話】機關說問題로中心으로 因病靜養中에 여러가지

人事·集會

▲李仁用氏(朝鮮鑛業時報社社長) 新任人事次本社來訪

▲禹基範氏(朝鮮鑛業時報社副社長)同上

陸外兩省葛藤 圓滿諒解成立

駐中公使昇格問題

【東京電話聯合】駐中公使館昇格問題決定에 陸軍部內에서는 外務當局의 措處에 不滿의意를表하고 橋本次官은 十五日午後一時부터 三十分동안 重光次官을 訪問하고 反省을 促하엿든데 右에對하야 重光次官은 諒解를求하야 懇談한結果 橋本次官도 外務當局의 眞意를 諒解하고今後協調하야 對中政策을 遂行하기로 和約하얏스므로 이에 駐中公使館昇格問題를 圍繞코 陸軍外務兩省間의 關係도 圓滿히 諒解되엿다

太平洋岸人夫 罷業擴大

【東京電話聯合】十七日샤톨支店에서 日本郵船會社에온 入電에依하면 밴쿠버及加奈陀太平洋岸의 木材人夫와 沖運搬人夫罷業은 漸次全加奈陀에 波及되어 近海째네스트는에들어가게될는지도모르겟다고한다

蘇聯체코兩國 相互援助條約案

今十六日正式調印

【프라그十五日發聯合】相互援助條約案에 關한蘇聯、체코슬로바키아兩國政府間의 交涉은 完全히 一致되어 同案은 드듸어 十六日체코슬로바키아 外務省에서 베네슈外相、蘇聯大使알렉산드롭스키氏와의사이에 正式調印을하게될것이라고 傳한다 相互援助條約의 內容은 如左하다

一、侵略의 脅威를 受할 境遇에는 聯盟規約第十條에 基한 處置에對하야 卽時商議를 遂할것

一、規約第十條 第七項에 基하야 第三國으로부터 攻擊을受할境遇에 卽時 相互援助를圖할것

一、規約第十六條化制裁規定의强

日品輸入阻止政策에 加奈陀에勸告書提出

【밴쿠버十四日發聯合】브리티쉬콜럼비아政府는 十三日 聯邦政府에對하야 勸告書를提出하고日本品輸入阻止政策에 對하야愼重考慮를要請하엿다

民世筆談(十二)

民衆深化過程(十)

우리民族性의病弊(四)

安在鴻

×

無何先生 足下

社會發展이 一定한 段階에 이르면 必然으로『自由』를 그 生活態度의 必須한 條件으로 삼게되는것이오 近代 先進諸國의 歷史的 過程은 어데나 이自由主義에 依하야 一定한 進步發展의 思想的主體를 삼은것은 길게 말할바 아니며 近代의 社會發展途程에서는 自由가『統一』보담도 以上의 價値性을 高調하게 되는것입니다 君主神權과 封建貴族의 專制政治를 打破하고 第三階級의 登場을 그主要條件으로한 資本主義 發生期의 政治制度에서 보담더『自由』를 그 生命의 標幟처럼 한것은 識者의 歷史常識의 ABC인 者이오 이自由가 議政壇上에서 庶民의 代表者 國政評議를 그 最上의 樣式으로 삼는 言論의 自由로써 잘表現되는것도 現代 社會常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言論이 近代『데모크락시』의 所謂『人民의、人民의때문의、人民에 依해서의』의 正常한 言論은 아니오 偏狹 苛烈한 黨派的 局見에서 거다가 現實을 正觀치안코서의 空然한 辯駁의 末端이든데서 高麗末期로 漢陽朝五百年을通하야 社會國家를 衰弊하는 一原因으로 된것입니다。

×

그러나 이것이 번듯한 國家制度의 主要部를 構成한 臺諫과 其他『淸官』인 要職에依하야 推奬助成된것이라고하면 어즈버 驚異의눈을 둥그러케 뜰것입니다 옛적에 宋太祖趙匡胤이 兵營으로부터 推戴되어 天下를 차지하매 大老名相이 그前代부터 繼承하는者잇서 畏懼함이 스스로 中心치못할새 中旨로써 數官을除授하고 政府를 糾察케하야 그權限을갈른매 輕擧妄動의 弊가 大體를 돌아보지안코 줄기어 彈劾을일삼어 往往 時局을글옷치는 禍因을 지울뿐아니라 投合과 符同으로 所謂 巧辭煩瑣을 마음대로 하엿스니 中國史에잇서서 宋代數百年은 가장그 民族衰亡의 斷然한時期를 이루엇다할것이오 漢陽朝以來에 百年은 上述自體의 歷史的情勢에다 이宋朝衰亡의弊政을본바더 그朱學偏重과 詩文取材(科擧)等의 政法으로더욱더 人心分裂과 社會頹敗의形勢를 促成한것이니 角亭縉紳이 그의『史論』에서『宋之立國이 專尙言論하야 百事無實하고 而是非顚倒하야 小人이常爲之主하고 而君子가不得霜其用……』이라고한것은 그漢陽朝 政法의失이 天下民生을 글옷치는 眞相의 一面을 諷刺한것입니다

×

高麗太祖는 唐의制度를輸入하고 特히『衛兵』의 軍國組織의 制를採用하야 高句麗의 五部武士의制와 新羅六部政兵의制를 損益하고 自意特立의 國風을 崇尙하야 그『親授訓要』十條에는 其四에서『惟我東方、舊慕唐風』으로 비롯하야『殊方異土에 人心이各異하니 不必苟同이라』고 外國文化攝取의 鐵則(特히 前代에서)을 道破하엿드니 漢陽朝에서 宋의弊法을 効顰함은 全혀 이에反하엿든者이오 疲弊한 麗末의時局을 繼承하되 昇平二百年에 오즉 黨門內爭의 積弊만 馴致하엿고 壬辰丙子大亂의 以後에도 드듸어 改革과振興의期를 逸하엿스니 이것은 내ㅣ 本文에서 거듭하야 指摘한바이라 重複할바 아닙니다。

×

昔者 正祖의朝 茶山丁若鏞『新我舊邦』하는 庶政改革의 切念함을 論하야『一自壬辰以後로 百度가 隳壞하고 庶事가 搶攘하며 軍門마累增하고 國用이蕩竭하며 田賦가紊亂하고 賦斂이偏僻하되 生財之源은 盡力杜塞하고 費財之竇는 隨意穿鑿이라於是에 唯以 革署減員으로 爲救急之方하니 所益者는 升斗오 所損者는丘陵이며 百官이不備하고 正士가無祿니새 貪風이大作하고 生民이 憔悴하니 竊嘗思之컨대 蓋一毛一髮이 無非病耳라 及今不改하면 其必亡國而後已하리니 斯豈忠臣志士의 所能 袖手而傍觀者哉아』? 라고 讜議의속에 오히려 悲痛한絶叫를 하엿든바이오 지금에 잇서이를보면 實로衰亡朝鮮을 爲하야미리 一篇의弔文을 보낸바이라어찌痛心치아니하오리까? 現代의 識者들이 感激조차업서줄가어 그過去도檢案치아니하니 반듯이 그前進에만 勇한것이라고 斷할바아닙니다 아모개인 某外國人은 우리에게忠實한벗이라 오히려『말만뜻고朝鮮人은 하치안는人民으로만녀엿다』고하엿습니다 그러나『朝鮮人은 聰明하고 剛柔를兼한人民이라』고 斷한이도잇스나 嗚呼百般餘生의 人달린人民으로 그政治的不利와社會的貧困에빠젓거니 그들에게 善美만흠責하는것도 또한억지『라할것입니다 夏園鄭壽銅은 失意의人이라 일즉名士의高鬱狀下의詩를남긴것잇습니다

機動發フクシマ ポンプ 부一뿜 セミデイゼル 農林省認定工場製造 小型發動機 故障絶無 セミ·五·四馬力 マグネット不用 噴霧器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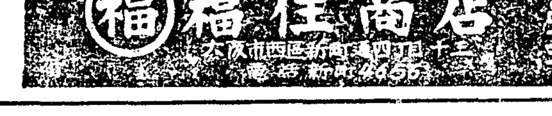
木炭ガス發生機 最新式小型輕量 2.4.5.6.8.10 15馬力型、木炭一貫目で石油一瓦の出力あり 各種發動機 各種農具 在庫豐富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四丁目 中央貿易合資會社 支店 大連市山縣通一五六

大阪著名商屋案內

軍手製造機械 毛糸編物機械 機械使用法教授 絶對安價로提供 大阪市北區北同心町妙見前 大阪メリヤス機械製作所 郵券二錢要カタログ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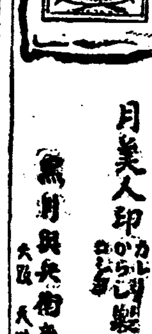
全鮮에 益益名聲과共히 品質優良으로風靡하는ゼスター 高級萬年筆을都賣廉價提供 (新版カタログ送呈) 大阪市北區菅原町四丁目 澤井商會製作所 電話東七九〇九番 振替大阪二四三八四番

僅少한 資本으로 其日부터容易히 장사가된다 고무活字 고무活字 當場에ゴム印名判을 組版하야 卽賣可能 到處에서 大大好評 賣行多大 (定報進呈) 고무活字及各種고무印 製造元 大阪市南區鍛冶屋町六八 吉川商店 電話南二三〇九番·振替大阪五五九一



捻子·鉄·工具類 諸機械及自動車用品一式 福住商店 大阪市西區新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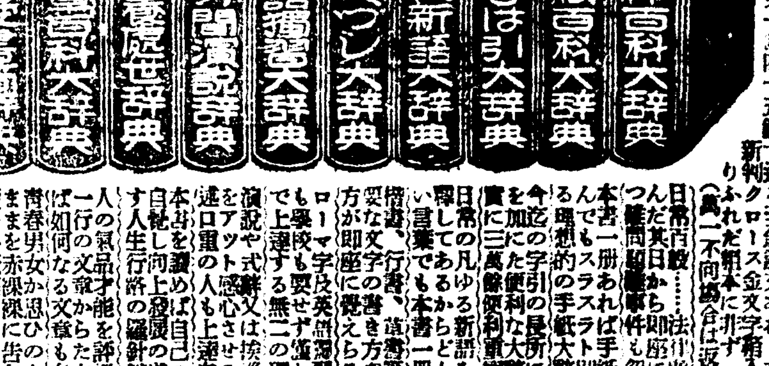
各種 折鞄 トランク 靴鞄 (製造卸) 大阪市西區南堀江壹番町十六 津田鞄商會 電話櫻川五六六一番 (郵券四錢要カタログ送呈)



우동、소바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고추가루 新與蕃椒粉 月美人印 製造本舖 本案內廣告一手特別扱 大阪西區本田一番町壹 滿鮮信報社

不可飮 루이마치스·神經痛 데인·傷處類·打撲傷 外用 主治効能 데인데、베인데、打撲傷、痔、루이마치스、神經痛、痛風、凍傷、말은옴、무좀、齒痛、害虫의刺傷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三圓 本舖 大阪市高麗橋詰町 福井對關堂 振替大阪四九番 全國各藥店에잇습니다

殘本處分 大投賣斷行 辭典拾冊合本のタダ一金一圓



法律百科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字くづ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三分間演說辭典 修養處世辭典 文章百科大辭典 家庭常識辭典

▼合本ですから一冊宛分賣は出來ません● 大好評!!

特別景品 昭和十一年用 模範日記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庄川町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尋人 元居住所(昭和四年前) 全羅北道井邑郡德川面

月刊雜誌·小說 書籍 目錄送呈 東京市神田區錦町

特許商標 朝鮮特許代理局 京城光化門

外用常備藥 一 히 二 후 三 미

綠葉節에特히 살을잘가지시라。조금만한 放心이라도엽보와서皮膚病은蔓延된다 皮膚病門藥一二三을잇지말고꼭常備하시라

主効 마른옴、옴부스럼진、무좀、섬、래독、옴떡、힘업는이、부흠、땀띠、진무른데、실에、긋긴데、濕疹、頭瘡、皸傷、切傷、火傷、胎毒

【定價】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東京市神田區明神下 寶効散本舖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

No.107

李洙倬運命決定될 東大再鑑定書全文【二】

四、前記鑑定書(甲)記載와如한狀況에잇서서 大正三年三月二十五日死亡한屍體에對하야 昭和二年四月二十六日解剖하고 翌五月十五日까지 사이에 檢査한結果 그鑑定書記載와如한 阿片을 檢出하엿다하고서 阿片이死亡前三日以上前日에 服用된것으로 認定하기可能한가

(一) 前記와如히 阿片服用後 그中毒으로 죽기까지에이르는 時間은가장긴것으로 五十六時間의例가잇다。故로이것을 가장 긴時間이라고하면 그以後에死亡한때에는 其死因은阿片中毒그것으로부터도 다른데에서도어들수잇고또한

(二)一般으로阿片이服用되여生體內에吸收된후 阿片成分으로서 體外에排泄되는時間은 本鑑定書第二項의鑑定書(乙)第一項에對한 說明理由에依하야決定키難함

右二項에서 阿片의中毒作用이 어떠한時間을持續하고服用者를 死에至치안케하고 其成分의體外에 排泄되는일이甚히 遲延되여胃腸內에 停滯되엿다고하면 阿片이死亡前三日前後에 服用된것이라고하드래도 必히阿片成分이 檢出되지안는다고는 斷言할수업다。그런故로屍體內에 檢出된阿片이 死亡前三日前에 遡上하야 服使된것이안이라고는 斷定할수업는일이라고思惟함

五、木死의死因은阿片의服用에잇지안코 他의疾病인것이 可能한가

本鑑定書 第一項의鑑定書(甲)(一)及、同(乙)(一)各條項에就하야 說明理由及 本鑑定書第九項의說明에依하야 本屍의死因은 他의疾病인것이 不可能한일이안이라고思惟함

六、通常으로 感冒의輕症에在한者가 普通藥으로서 他人에게서바든阿片致死量을 阿片인줄모르고 服用한때 其苦味를堪耐할수잇슬까。

致死量阿片을 그것인줄 모르고服用할때에오브라드가틀것으로싸서 服用할때는 說明할것도업지마는 不然한境遇에그쓴맛에 견될수잇느냐 업느냐는個人性或은 그服用法等에따라서支配되는故로斷定할수업다

七、前記第五號 衛生堂七水의診療簿에 記載된方劑의 藥物을나열때에 이에致死量의阿片을投入한것으로 假定하고 그阿片의作用에重大한 影響이업는가 漢藥의成分及禁忌等에 對하야 現今의 醫學的으로 闡明된것이 甚히적음으로써 詳述할수업는故로 다만漢方에依하야知得한바에依하면

蒼朮은利尿及 發汗作用이잇서서 解熱藥으로使用하며 禁忌는桃、李、崔及鯖이고 阿片은記載되지안햇다 따라서 阿片의作用에及하는 影響은不明하다

陳皮는 健胃及發汗藥으로서使用한다 禁忌의하는記載가업고 따라서阿片의影響은 不明하다 厚朴은催亂、中暑及利水에効力이잇다하엿다 禁忌는瀉湯硝石

側에올러건데 平常一般의쓴맛에 慣化된사람에게 잇서서는 阿片의그것에 飮令그것을 集斷키어잇스며 大量의 液體等을 여기드래도 因하야 比較的容易히服用할수잇다고 思惟한다

寒水石及黃芩이고 阿片은記載되지안햇다 따라서阿片의作用에 及하는 影響은 不明하다

藥果는蔘時適用小便利尿等을 治療하는데 使用하엿다 禁忌는記載된것이업스며 따라서 阿片의作用에及하는影響은不明하다

赤茯苓은水腫、淋疾、其他小便利尿等象한 方劑로配合되여잇지안타 그러나 作用에及하는 影響도不明하다

牛夏는逆咳及逆吐의鎭靜藥으로使用된다 禁忌는羊肉이나 飴糖이고 薑黃生姜、陳皮、鼈甲烏頭를두려워하며 且海藻과飴糖인데 阿片의記載는업다 그러고 阿片의作用에及하는影響도不明하다

藿香은脾胃吐逆의要藥이다 禁忌는 붉(火)이다 阿片은記載되지안헛다 그러고 阿片의作用에及하는影響도不明하다

山査는此의記載된것을보지못하엿다 그러고阿片作用에 及하는 影響도不明하다

神曲은 消化藥으로 使用한다 禁忌는記載된것업스며 阿片의 作用에及하는 影響도不明하다

甘草는 諸藥을加하야 緩和及祛痰 … 甘草는金石及草木의藥毒을풀고 且諸藥에 中和하는것으로 使用한다 그러나 阿片의中毒을 和하는가 안는가 記載되지안햇스므로써 阿片의作用에 及하는影響은不明하다

八、死因이阿片中毒인 경우에그 症狀은如何한가

阿片을經口的으로 攝取한경우에그것은 胃腸內에서 그含成分에 分解되며 多量의膠質로말미아마 緩慢히生體內에 吸收되야 그中毒作用을 長久히持續하며 主로 모루히네의中毒症狀을나타내는것인데 急性과慢性과의두가지가잇다

(一) 急性中毒症狀은 먼저知覺刺戟에對한 感受性이 鈍痲하야 痛覺을減하며 又咳嗽刺戟等을消失하고 溫暖한感과顔面潮紅、興奮狀態發汗、發疹皮膚搔痒呼吸과脈搏數의 增加尿意頻數、噯氣及 嘔吐를發하고 更히中毒作用이 進行함에따라서 漸次로睡眠을催促한다 (續)

超景氣·日收萬圓
黃金狂景氣ニ 總督府鑛務課에!
可驚할印紙代手數料收入

황금광경긔는 의연히계속되고잇서 다소광업자는 산을넘고 물을건너 금광을차저단니며 또한금광을출원하려는 그들은 매일 종독부광산과(鑛山課)에 삼백명내지 오백명씩이나 밀려드러 광산과에서는 금년에도 륙십여명의대증원을하는터인데 금년에드려서는 광구출원이 흑히격증하야 매일 일백건이상에 달하야 금년으로서 제일출원이적엇든날은 이십팔건이 한번잇섯슬뿐이고 그외에는 오십건이상일백사오십건까지잇는것이 보통이며 일요일이면우편으로 출원서류를 보내온다는데 이출원열람등의 인지대수수료등광산과의 하로수입은 매일 일만원을초과하야 한달동안의수입은 최소이십오만원 최고삼십만원을돌파하는 현상으로 금년일년에는 약 사백만원이나 될예상으로 멘천만원의 자본을 드린 관영 사업의 순리익보다도 매우 큰리익으로서 이러한 수수료수입외에 막대한액에 달할 광업세의격증을 고려하면황금광경긔가 총독부재정에 미치는영향이 심히 큰것을알것이다

西洋畫特選엔 朝鮮人獨舞臺
新制度推薦者十三名發表
今日美展特選發表

鄭燦英氏筆

십륙일오전십시에 제십사회조선미술전람회의 특선작품과 창덕궁(昌德宮)과총독의수상자(受賞者)를 다음과가티 발표하엿다 그리고 이번에미술전람회의규정이 개정되야 새로추천제도를신설하게되야 제일부와제이부가각오인 제삼부가세명 합십삼인의 추천이 결정되엿다 추천제도라는것은 특선에 여러차례선발되며 또는이전람회의 발전에공헌이 만흘뿐아니라 긔술기타의점에잇서 우수확실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장의 추천에의하야 영원히감사를 밧지안코전람회에 진렬할수잇는 우대를하는제도이다 그리고추천자와 갑부의특선작품과 작자의씨명은다음과갓다

推薦者
第一部(東洋畫) 李象範 李英一 松田正雄 堅山坦 加藤倫吉
第二部(西洋畫) 山田新一 遠田運雄 白吉守 金鍾泰 三木弘
第三部(彫塑及工藝) 寺畑助之丞 淺川伯敎 五十嵐三次

特選
第一部(東洋畫)
閑日 京城 松田正雄
△夜部 平壤 江口敬四郞
風景 京城 片山坦
少女 京畿 鄭燦英
△淺春 太田 石橋吉郞
第二部(西洋畫)
慶州의谷間에서 東京 李仁星
俊子의像 東京 林應九
△橋의어떤風景 京城 藤田正雀
老人 鳥致院 明日勳
座像 京城 鄭之雄
裏裝 東京 金鍾泰
▲畵本을보는少女 大邱 金龍祚
(△印은今年初選者)
第三部(彫塑及工藝)
螢龍牡丹彫刻文樣衝立 京城 土屋耕造
陶房 京城 岩佐久代
螺鈿茶棚 京城 金鎭甲
肉彈三勇士 京城 戶張幸男

受賞者
昌德宮賜賞
東洋畫 少女 京畿 鄭燦英
西洋畫 慶州谷面에서 東京 李仁星
工藝品 螢龍牡丹彫刻樣衝立 京城 土屋耕造
總督賞
東洋畫 閑日 京城 松田正雄
西洋畫 橋에어떤風景 京城 藤田正雀
西洋畫 俊子의像 東京 林應九

(사진은추천자되삼상씨중 김종태씨 =상= 리상범씨 =하=)

또이번에 처음으로 특선이된조선인은서양화에 대구(大邱)김룡조(金龍祚)씨 공예품에 경성김진갑씨량인뿐이고 일본내지인은동양화에 평양강구(江口)씨 대전(大田)석교(石橋)씨 서양화에등전(藤田)씨 공예품에 토옥(土屋)씨 네명이다

歡喜와 驚愕
初特選金鎭甲氏談

제십사회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展)제삼부(第三部)에 라전다봉(螺鈿茶棚)을 출품하야 조선인으로서 금년에초특선(初特選)의 영위를어든이는 시내영락정(永樂町)이정목 삼십이번지라전칠긔제작소의주인인 김진갑(金鎭甲)씨라는 천분과 노력이겸전된 독학의청년예술가이다 그는일즉이 시내 청운공보(淸雲公普)의전신인 청풍학교(淸風學校)를 삼년급밧게 못다닌 불우의사람이엿스나 시사세때부터 리왕직미술공장(李王職美術品製作所)의직공으로 들어가서 이래십삼년동안꾸준히 라전칠긔에 전심한후약삼년전에 현재의 공장을시작하야 지금은 이십칠명의제자를 데리고열심히 공장을경영하여가고잇다 그리하야그는 작년가을부터 착상을하여 일년동안고심을한결과 이번에드듸여 청도(靑桃)나무밋헤사슴이노는 도안(圖案)에 그의특수긔(특인옥조)(內彫)를너어서 만든다봉(茶棚)이 삼년동안 계속하야입선(入選)한 끗헤 금년에는특선(特選)이되엿다 이라한다 긔자가 공장으로그를 방문한즉 그는무한 겸손한태도로 다음과가치말한다.

별로히 변변치못한것이 특선이되엿다하니 놀램과깃붐이겹칩니다 도안(圖案)과패접(貝切)、도방(塗方)과 조각(彫刻)까지 전부를 내혼자햇든데저욱히 자위를가슴다붑니다

(사진은 김진갑씨)

癩患者百餘名이 同僚를大擧打殺
療養院의經費橫領問題로
釜山府外療養院서

【釜山支局特電】 천형병(天刑病)『이승의저주』의 무서운업(業)을바다 송사리를하고잇는 리병환자(癩病患者) 의사회에도 더러운탐욕(貪慾)의물결이잇서 마츰내그로인하야 백여명의환자가 대거분긔하야심야에근처부락을습격하고 가든환자를 따리여마츰내 죽게한모골이송연한일이잇다 십사일밤 여덜시반경에 부산부외 서면대연리(釜山府外西面大淵里)에잇는 영국인매견시(梅見施)씨의 경영하는 리병료양원에수양중인 리병환자일백여명은 병원을몰래뛰여나와서동리부근부락에사는리학조(李學祚)의집을습격하야리학조를 잡아내여모둠매를따리여 리학조는 십오일오전네시반에 절명되엿다 원인인즉 전긔리학조도 리병자로입원료양한중 간호원(看護員)이되야 심부름을 하얏는데 평소부터 횡포하야 일반의미움을받는바 지난삼월경에 신탄구입(新炭購入)비에서 이백사십이원륙십전을 사긔횡령한사실이 지난오월초에이르러 가치잇든 환자의밀고로 장부를검사한결과 발각되야 자긔집으로 쪼끼여나갓는데 나갈때에그는 밀고자를원망하면서 그를죽이여복수하겟다고한것을 이때일으러 일반이알고분개하야 그와가티직접행동을 취한것이라한다 이급보를밧고 소관부산경찰서에서는 전서원이 다나가다십이출동하야 주모자로 십여명을검거하야다가 방금취조중인데이들은 몸에악질(惡疾)을지닌만큼그 취급상 비상한두통을늣기고잇스며 사망자의시체는 부산검사국의 지휘로해부에부치엇다

國有林野를 僞文書로賣喫
江原道廳雇員의所行

강원도도청 산업과(産業課)고원 정규택(鄭珪澤)(二五)은 춘천읍봉인정(春川邑鳳仁町)륙십칠번지에잇는 국유림야 이천이백구십평과 가튼춘천읍 대성정(大成町)일정목 일백십팔번지에잇는 국유림야 일천칠백 칠십이정보에관한 공문서를위조해서 그첨차계엽(車桂燁)(二七)의 명의로 고처가지고 춘천읍 봉천정(鳳川町)정순기(鄭順基)에게 그일부를 오백원을 밧고 팔아먹은것이수일전에야 그곳경찰의 손으로 발각되엿다고한다 미리부터 이일이 탄로될것을 깨다른그는 발각되기던칠전에 깜쪽가티어대로 모양을감추어버려서 방금강원도 경찰부에서 각지경찰에수배하야그의행방을 찻는중이다

유모

를구하오니희망하시는분은급히오십시요 京城府鍾路五丁目九八 電光六七九番

十二歲少年이 七百圓携金出家

황해도장연군장연면읍내리(長淵郡長淵面邑內里)신모의아들 신종규(申鍾圭)라는열두살먹은 소년은 십오일오후에 그의아버지돈 칠백원을 훔처가지고 어대로인지도망해버렷스므로 그의아버지는경성기타 각지경찰서에 부잡아 달라는 지급전보를하엿다

◇

충남당진군면천면창리(唐津郡沔川面倉里) 리상호(李象浩) 의장남 건영(建榮)이라는 스물두살먹은 청년은이달사일에 그의집돈 이백오십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광화문통 광화려관(光化旅館)에묵고잇다가 그뒤행방불명되엿다한다

日本內地在留者 五十三萬의多數
原籍은慶南의二十萬이最高
年復年增加하는傾向

현해탄(玄海灘)을 건너 멀리동경(東京)대판(大阪)등지에 재주하는 조선인은 매년격증하여가며 그들의생활문제 또는로동문제를 둘러싸고 도항자저지문제가이러나 그취체는 극히엄중하야 가지가지의말성을 이르키고잇는데 그러면그들의 현재재주하는수는 얼마나되는가 총독부의 조사에의한 금년 일월일일현재에 재류자총수는 오십삼만칠천오백칠십칠명에 달하는데 이것을 원적도별로보면 다음과갓다

京畿	一〇、七三六
忠北	一五、九四九
忠南	一九、七三九
慶北	一一七、七九二
慶南	二〇〇、八〇五
全南	一一九、一六九
全北	二六、三一〇
黃海	四、四六三
平南	四、九九三
平北	四、三三七
江原	六、六二八
咸南	三、八八二
咸北	一、七八一
計	五三七、五七六

전과와가티 도항하야 재류하는 조선인의 도별로보면 경남의이십만팔백오명이 최고며 그다음은전남의 십일만구천여명과 경북의십일만칠천여명이며 최소한도는 함북의이천칠백팔십일명이라 한다

運動競技欄

全日本綜合蹴球에 出場할朝鮮代表
十七名의『픽업팀』編成 來廿五日에出征할터

朝鮮蹴球協會에서는 來五月三十一日、六月一日、二日의 三日間東京神宮競技場에서 열리는第一回全日本綜合蹴球大會에 出場할朝鮮代表팀을 編成코저 昨十五日에 銓衡委員會를열고 討議한結果 다음의十七名을 選拔하엿는데 一行은今後京城運動場에서 連日猛練習을 싸어가지고 來廿五日頃에出征할려이라한다

◇京城蹴球團=李惠達 GK、崔禎熙 ◆練習監督金和集 ▲監督鄭文基、李仁奎 ◆마네저 成琛(LI)
◇普成專門=朴奎禎(RF)、金容植(CH)、裵宗鎬(RI)、金炳禧(LH)、朴孝濬(LW)
◇延禧專門=鄭龍洙(LF)、李季鎬(RH)、李裕灐(RH)、金景漢(LI)
◇平壤蹴球團=康基鋅(CH)、朴炯烈(RH)、朴仁植(LH)、李正現(RW)、朴義鉉(RI)、金永根(CF)
▲候補=蔡金鍋、金成玕、李貞權、李致淳、高潤宣

大豫對法專籠球 法專軍先勝
第二戰은十八日에

法學專門學校 對京城帝大豫科의 第二回定期籠球對抗戰第一日은十五日午後五時八分부터 淸凉里大豫코―트에서 擧行한바 非常한接戰끄테 法專軍先勝하얏다 第二回戰은 十八日午後五時부터法專코―트에서行할터이다

法專 27 {14―13 / 10―10} 20 大豫

【大豫】		前	後	反
F	重勤	0	1	1
	徐鍵	4	2	0
C	南基鎬	0	4	0
G	張昇鎬	2	0	1
	韓德在	4	3	2
		10	10	4

【法專】		前	後	反
F	澤銀	6	2	2
	成萩	0	2	1
C	崔國鉉	2	6	0
G	洙熙鉉	2	0	1
	金潤彰	0	0	0
	李	3	4	0
		13	14	4

第五回中等、俱樂部 籠球聯盟戰率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運動部後援의 第五回中等校、俱樂部籠球戰은 昨十五日까지에 終了한바 最終日까지의 戰率은別表와갓다

五回 籠球聯盟戰率 …最終日까지…

◇中等校B級◇

(順位)		(試)	(勝)	(敗)	(率)
1	青學	4	4	0	1.000
2	一高	4	2	2	.500
2	中央	4	2	2	.500
3	培材	4	1	3	.250
3	京寶	4	1	3	.250

◇中等校A級◇

(順位)		(試)	(勝)	(敗)	(率)
1	中東	4	4	0	1.000
2	養正	4	3	1	.750
3	徽文	4	2	2	.500
4	大東	4	1	3	.250
5	徽新	4	0	4	.000

◇俱樂部◇

(順位)		(試)	(勝)	(敗)	(率)
1	普專	2	2	0	1.000
2	延專	2	1	1	.500
3	高麗	2	0	2	.000

實業庭球戰績

京城實業庭球리―그戰第十日은十五日午後四時半부터 殖銀、朝銀兩코―트에서 行한바 이날의 戰績은다음과갓다

【鐵道】 【專賣局】
○ 朴源福 秋山 4…0 李鳳基 梁在景 ×
○ 山口 古屋 4…1 相馬 柳忠變 ×
○ 黃河秀 鄭士連 4…0 李承鶴 李容馥 ×
× 張甲麟 崔昌燮 1…4 黃基成 朴貫世 ○
× 渡邊 鄭元珍 2…4 白潤輔 李正玉 ○
【第二라운드】
× 朴源福 秋山 3…4 黃基成 朴貫世 ○
× 古屋 山口 0…4 白潤輔 李正玉 ○
【第三라운드】
○ 黃河秀 鄭士連 4…1 黃基成 朴貫世 ×
× 黃河秀 鄭士連 3…4 白潤輔 李正玉 ○
【商銀】 【府廳】
○ 金田亨 朴泰和 4…3 金石渠 崔秉燦 ×
○ 金時浩 趙世新 4…1 森 鶴永 ×
× 小野 保任 1…4 河東植 林成根 ○
× 洪鍾相 劉殷相 2…4 晋基煌 赤松 ○
× 朴興華 河村 2…4 金東赫 李鳳基 ○
【第二라운드】
○ 金田亨 朴泰和 4…3 河東植 朴成根 ×
○ 金時浩 趙世新 4…0 晋基煌 赤松 ×
【第三라운드】
× 金田亨 朴泰和 0…4 金東赫 李鳳基 ○
【第四라운드】
× 金時浩 趙世新 3…4 金東赫 李鳳基 ○

運動界人事

▲延禧專門蹴球團一行十七名은林炳華氏引率下에 十五日夜着平 中央旅館에投宿
▲五山高普蹴球團은 韓醫錫氏引率下에 永昌旅館에投宿
▲崧都高普蹴球團은 宋基洙氏引率下에 西都旅館에投宿

天氣豫報
晴一時曇

低氣壓은 沿海州에 잇서서 東進하고 잇다 高氣壓은 中國海上으로부터 南朝鮮及 本州西部에 퍼지고 잇다 朝鮮은大槪 日氣가 조코 淸津地方은 曇天、國境中部에는 小雨가잇다 氣溫은 江陵의 十四度와 中江鎭의 八度間에 잇다 明日도 日氣는조흘편이다

昨日氣溫 最高 十九度九 最低 九度三
今日正午 一六度七分

京城紡織株式會社新株式募集

京城紡織株式會社增資趣意

本社는大正八年十月에朴泳孝、金性洙外數氏의發起로서當時零星한朝鮮產業을啓發하야自給自足에依한經濟力을涵養하고또한多數同胞에게職業을施與하며더욱工業的訓練을圖成할趣旨로써創設하야當初織機百臺로써操業을開始한爾來로年復年四次의增設과株金全額百萬圓을拂込하야現在織機六百七十四臺로써最近年生產額五百萬圓에達하게되엿스니前記作業當初年生產額略四十萬圓餘에比함實로十數倍의增產을하게되엿스나오히려供給不能의品切狀態를呈하고잇습니다

이에本社는一步를進하야爲先時急히織機一萬一千六百錘와自動織機二百二十四臺를現在永登浦工場에增設擴張中인바此에資本金貳百萬圓을增加하야總資本金參百萬圓으로하고新株式四萬株內에四千株를左記와如히公募하오니朝鮮產業을助長하시는諸位는多數應募하시옵기切望하나이다

新株式募集要項
一、資本金 金參百萬圓也 (前資本金壹百萬圓(全額拂込濟) 今般增資金貳百萬圓(新株募集))
一、新株總數 四萬株
一、公募株數 四千株
一、募集金額 金貳拾萬圓
一、壹株의額面及金額 金五拾圓
一、第一回拂込金額 金拾貳圓五拾錢 (申込證據金併算)
一、募集株數單位 拾株 (單位를十株로하야十株未滿의端數는附치안이함)
一、申込證據金 壹株에 金貳圓五拾錢 (募入決定數는拂込株金全部又는一部에充當함)
一、募集期間 自昭和十年五月二十日 至昭和十年五月二十五日까지
一、募人決定方法 株式申込이公募하는總株數를超過하는時에는其割當은取締役會에서適宜決定함
一、第壹回株金拂込期日 昭和十年六月二十日 (株金拂入을하지안는時는申込을無効로하고其申込證據金은此를返還치아니함)

株式申込及拂込取扱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朝鮮殖產銀行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海東銀行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一五番地 京城紡織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秊洙

朝報案內

電話 高價買人 孝子洞五二ノ二 京城電話仲買店 電光二九七九番

募集 社員若干名採用年齡二十才以上資格中等學校卒業程度漢文豊富도可自筆履歷書寫眞添付要 京城鍾路五丁目六三番地 東西醫藥研究所

醫專 生求職家庭敎師病院助手國語個人敎授等求하시라는분은左記로申込하시옵 平壤醫專杏林會共濟部 電話一五〇二番

恩給 立替救濟的最有利金融方法 京城授恩洞 鄭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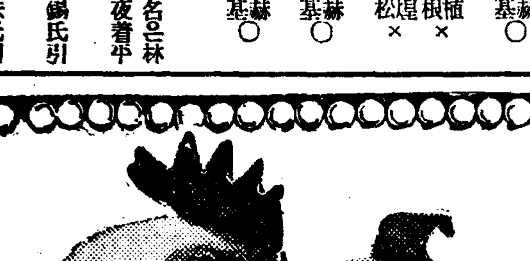
高等普通學科講義

立身出世의近道
高等普通學科講義
高等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外에獨學通信每月無代進呈
高普科 三十冊 一冊六十錢 一年三個月 卒業 選修
普通科 十三冊 一冊五十錢 一個年 卒業 隨意
朝鮮高等普通學會 京城府和泉町六 電話(光化門)一八八四番 振替口座京城八八九五番

新學期開講 入學의好期
學則附 內容見本 請求即時 無代送呈

春期新學期學員大募集
此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特典으로其次號一冊을無代로配付하며、且兩科를通하야誠實繼續者에게는各其學年末에相當한講義錄一冊을無代로賞與하는特典을設함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錄이며朝鮮語漢文學科가잇는것과他講義錄에比하야會費도거의半額임을注意하라


去勢鷄의鷄冠發育을호루몬定檢法에依하야 (左)는안도로스진을준去勢鷄、(右)는주지안은去勢鷄 안도로스진은단지鷄冠의發育促進作用을檢查한데만그치지안코精囊에미치는作用을檢查하야그全效力을알게되다

强力男性호루몬 アンドロスチン (안도로스진)
生殖腺호루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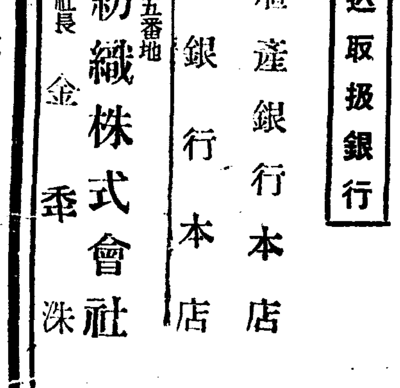
新鮮한動物의雄性生殖線에서그水溶性及脂肪可溶性의全有効成分等을完全히抽出하야生物學的檢定下에効力을一定하게한進步된男性호루몬劑로서左記疾患에卓越한效果가잇사오니一次試用하시압

精力減退・體力減退・精神力衰弱・倦怠感
生殖器衰弱・早老症・性的神經疾患等

定價 (錠劑三十錠入 三・八〇 / 注射劑六管入 四・〇〇)
外二百五十錠入及五十管入잇슴
日本及滿洲國總代理店發賣元 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文獻呈進 大阪市東區瓦町 三和ビルヂング內 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本學術部에서郵呈

青春의源泉・活動의要素

10-14


申不出氏作 新作 스켓취 서울구경
오케―레코―드 (1772)

輝く質の変らぬ サック
〇感 そのまゝ
ラッキー
日本ハナキゴム製造所

大衆盤 아메리칸 리―갈코레―드
창부타령 鈴打
紅一朵 一張 八十錢一枚

눈

입부게하는데는 피로하지안케하는것이제일

「피니쉬」를 하거나「하이킹」을하거나 하로의 행락을 하기조흔철이 도라왓습니다

그러나 첫여름의 해ㅅ볏은더운여름 가티 세지는안치마는 집밧게서 지내이게 되면살결은 상당히 볏에 걸게됩니다그러므로 이때에 잇서서 이살결을어떠케 가질것에 대해서주의할몃마듸말슴을 드리겟습니다。

위선 외출하실때에는 화장하지안어서는 안됩니다 맨살결에 볏이 쪼히면 볏쪼히는 정도가 극심한것은 물론 죽은깨가 만허지고살결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화장을한대도요즈음『하이킹』할때는너무진화장을해서는 안되므로『콜드크림』을 발르신뒤에 닥사든지시요『프로덕터-크림』(안처소진가든것이 가장 조흡니다

×

비누로 낫을씻고『크린싱、크림』으로 얼굴과 목의전체를씻처내고、손까지 씻츠십시오 그리고는 화장수로 살결을 잘매마진뒤에 살빗보다 조금진한분을 바릅니다 그다음에는 볏에걸리지안는 크림을발른뒤에 꿀고로 문지르십시오 그리고는분을 조금진하게바르고 그우에화장수를 바릅니다

그리고 모자는 될수록 채양이 잇는 가벼운것을 쓰십시오

그런데 만일 땀이 날때는『까-제』로만든 손수건으로 가볍게눌러서 땀을 씻슨뒤에 화장을고치면 아-조 볏에 걸지안습니다

그리고 집에도라 오신뒤에는 화장한것을 깨끗이 씻서버리고『콜드크림』을 발르신뒤에 맛사-지를 한참동안하여 혈액에순환을 조케하십시오

×

살결만을 어떠케 화장할것이 안이라 눈도피로 되엿스므로맑근물이나 붕산수(硼酸水)로써눈을씻스십시오 그리고 눈섭에기름을조금 발러두십시오

×

그리고 모자에 짓눌리인 머리털은 땀에 저젓스면 더운물수건으로 씻고 솔질을 잘 한뒤에 말지면에『헤어 로-순』을 적셔 머리가죽을 깨끗히씨서두십시오。

어러케만 손질해두면『하이킹』이나『피니쉬』를 몃칠 계속하고 또볏에다소 건다하드라도 건강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화장에 잘주의하야 조흔살결을 보존하도록하십시요

家庭

유모선택할때는 허트로-구하지말일

젓의성분과체질을조사합시요 애기에게미치는영향

엇더한 사정이잇서서 모유(母乳)로서 애기를 기르지 못할때 유모(乳母)를 두는것은 다른인공영양(人工營養)보다는 훨신더 안전한방법입니다。

그러나 금옥가티귀중한 애기를맥기는것인만큼 유모의선택은 충분이주의하지 아니하면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모로서 선택하는녀자는 우선

년령으로보아

이십세이상 삼십세까지、그리고 그아해가 튼튼이발육되며 현재 젓을먹이는중이고 해산한뒤 일개년이내의녀자이면 조건으로는 조흔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완전한 방법으로는유모될사람의 모자의건강진단을밧는것이조습니다。유모의아들의 건강을조사하는데는 우선 그아해의 발육상태에의해서 유모의젓이 조코낫분게라든지 분필(分泌)의 만코 적은것을 알수잇는것일뿐만 아니라 선천성매독 가튼것도난후 두달가량만되면 그증세가 어린아해의게 낫타나는것이고 또한 유모의게는 자각증세(自覺症勢)가업서도 그아해의게 낫타나는 것입니다。이러한모든

각긔의증세가

점으로보아서 첫재 유모의아해의발육상태를 조사할 필요가잇는것입니다。 또한 유모의젓통이나젓꼭지가 아모리외관상으로보기는발달이되엿다고하드래도 지방(脂肪)분이고 유선(乳腺)이발달되지안을때는 젓나는것이적습니다。

그럼으로 유모의아해가 발육이잘되엿으면 젓도 만히나는것으로볼수잇습니다。

그러나

제일중요한것

은 이러한 유모의젓이 자긔의아해의게 적당한지 안한지를시험해보지안으면안됩니다。그러는데는 우선십분이나 이십분식이식 시간을정해놋코 젓을먹여보아서 토하지안는다든지 또는 이삼일계속해서 먹여보아서대변(大便)빗도 변하지안코 체중도줄지안는다든지 기타 다른탈이업슬때는 그유모의젓이 자긔의아해의게적당한것이라고볼수잇습니다

그러나 유모는 흔히 이전에 지난병이나 현재잇는 신병가흔것을숨기는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은 충분이

조사할필요가

잇는것으로서 만약 아해를나엇다가업세다든지 류산(流産)을하엿다든지하엿다면 그녀자에게한번 매독이잇는지 업는지를검사해볼필요가잇습니다。그리고 페결핵、피부병、림병(淋病)、각긔『도라홈』림독(淋毒)가흔 것들의 증세가잇는이는 절대로 피하지안으면안됩니다。

그리고 유모의성격도 고려해야할것으로서 물론 성질이온순하고 선량해야할것이지마는 일종의 락천가에갓가운성격이좃습니다。그리고 유모의 대우에대해서도 주의해야할것은 생활상태에

급격한변화가

잇서서는안됩니다。가령 고요한 시골에잇든녀자가 도회지에나와서 더구나부유한가정에 드러가게되면 딴편이안되며만큼 어색하고 부자유해서 젓이잘나지안케되는수도잇습니다 그리고 운동갓흔것도 적당히식히는것이조습니다

첫여름

家庭메모

소곰과쌀간수는 이러케하십시요

지금부터 장마때가되여오는데 쌀이벌레가일게됩니다。그때에는 자리를펴고그우에 쌀을부어서 음간(陰干)을합니다。그러면 벌레가 곳 기여나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것은 쌀을 양지에말리면 밥을지을때 찰긔가업고 밥맛도업습니다。 그럼으로반드시 음지에말려서 볏살은 절대로 긔하지안흐면 안되겟습니다。

◇

그리고 또하나 알어두어야할것은 소곰을잘보존하는법으로서 소곰을 그릇에 너흘때 그릇밋헤다가 겨를복가서 한치가량 두텁게깔고 그우에 신문지를깐뒤에 소곰을너허두면 장마때가되여도 소곰이녹아네리지안습니다。

그리고 소곰을 내여쓸때도 결코 저진손으로 그대로집어내지말고 될수잇는대로 숫갈로떠내는것이 조습니다。만약 밧버서 손으로집어내게될때에는 물에저진손을잘씻서서 물긔가업게하는것이 조습니다。

밤이슬을발브며 『랑데이부』한죄

영국직업녀성에페병만흔까닭

영국의 직업부인은 페병이 만타고 합니다 그것은 그여자들이 밤이슬을 밟으며 공원에서『랑데브』하는때문 이랍니다。

이말이 혹은 녀성에게 대해서 실례되는말이 될는지는 몰우지만은 사실에잇서서 과격한 로동에 피로한 직업여성의 해방된 이 순간이『큐피트』의 회살아닌 페결핵균의 독살에 따거운 심장이 식어진다는것은너무도 하늘의 작난이 괴묘하지안습니까?

×

오늘날 페병은 날로 만혀가는데 이원인은 대개가 직업전선에서 활동하는때문입니다

즉 제일로 생활에 너무나한 무리가 잇는때문입니다

그것은 적은 수입으로 훌륭한 생계를 하지안흐면 안되게 되므로 자연 먹는것보다 입는것 화장하는것 또는 사교비용등 외관상비용이 만키때문에

이제 조선에서 사망률을 보면 대개이십세로부터삼십세까지가제일만은데 이는대개가페병으로 죽는것으로 외국의오십세 내지칠십세되는 사람이 만히죽는것에비해보면 이는너무도놀래일 사실입니다 이는 민족의성쇠에도커다란 영향이 잇스므로 각기주의하야 할것입니다

입과 성격

—역시고혼입술에고혼성격!—

입술의 개폐상태(開閉狀態)로서 그사람의 성격을짐작한다고해서 어전부터입을 세게담으리고 잇는사람은 의지가강하고 실행력이잇다든지 입을벌리고 잇는사람은 저능(低能)하다고하나 요지음 어-느치과의사가 다음과가튼 의견을발표하엿는데 과연얼마나 과학적인가는 의심스러우나마 여러분도 한번 거울을노코 보십시요 맛는가 안맛는가

입술을 세게담으리고도 애교가잇는분은 원만한가정을 이룬다고합니다。

입술이큰분은 애정이만타고합니다。

입술을 곱게담으리는분은 아름다운인정미가 잇답니다。

부인의입술은 적은것은 정형(正形)인데두껍이미튼로처진분은 억제력이만코냉정침착한성격을 표현한것이랍니다。

입술이두터운분은 축재력(蓄財力)이강하고 동시에 애정도크답니다。

입술이뾰족하고 특히윗입설이 나온분은 입이재고 락책이잇답니다。

입을벌리고잇는사람은 우둔한이가 만탑니다。

입술이잘담으리고 상하의균형이잘되며 벌지고혼분은 총명하답니다。

家庭醫學

십이지장충일까

問 금년네살된녀아가 십이지장충이생겻는데 밤에하얀벌레가 작고나옵니다 병원에가서치료를 바더도 속히근치가안되오니어떤 약을써야속히낫겟습니까 자세히 가라처주시요

답 잘못 알앗습니다 그나오는것이 십이지장충이안입니다 십이지장충은 깁히잇슴으로 그러케뵈이게나오지안습니다 그것은 요충(蟯蟲)이라는 긔생충이대그러케십이지장충과가티 몸에해로운충이안입니다 그러나속히 치료하셔야됩니다 그처방은『산토닌』을먹여도 낫지안흐시면입원 배송(昇汞)수또는일백배『키니네』용액으로관장하시요

(民衆醫院內科長金東益)

曆

五月十七日(金) 舊四月十五日 辛巳(小)

癸巳·水·婁·建

●裁衣에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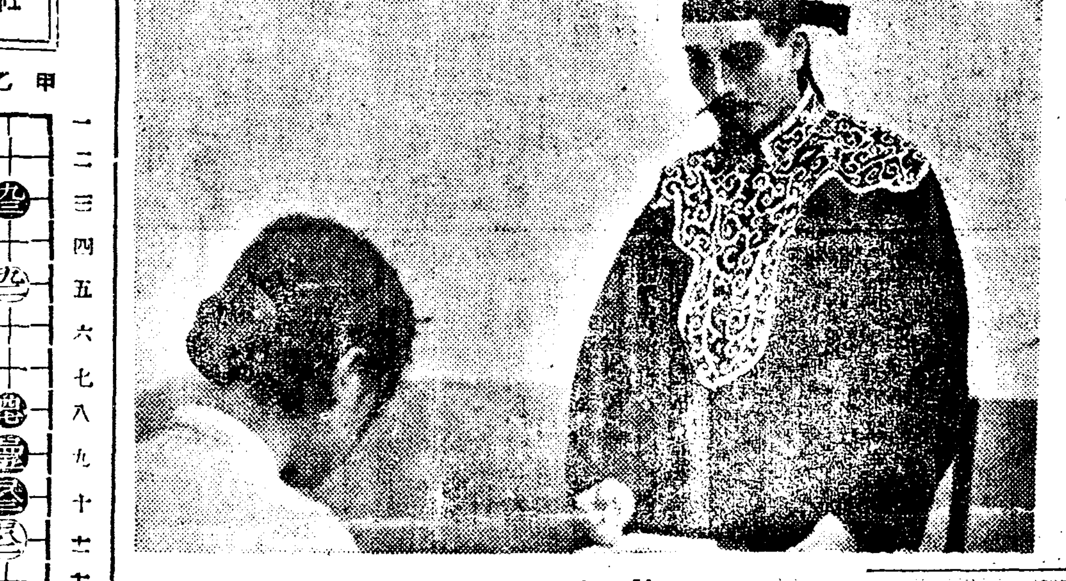
▲立夏 六日(舊四月初四日)

▲小滿 二十二日(舊四月二十日)

西洋키네마作品 『離鄕』完成 京城서第一回公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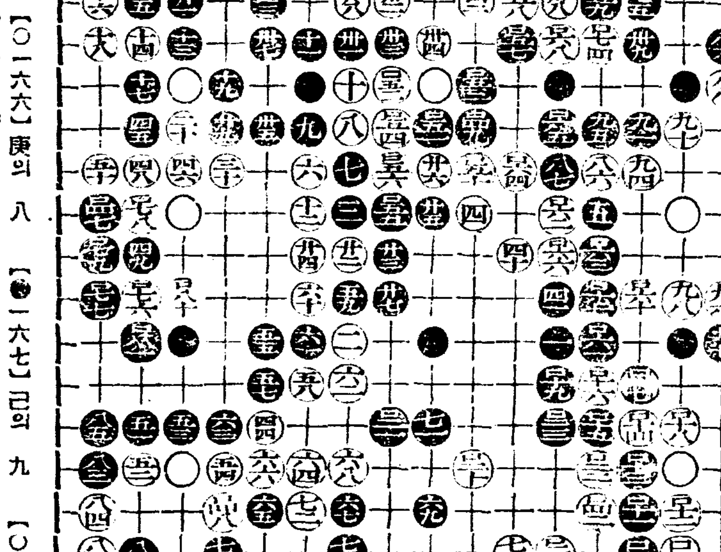
【鎭南浦】얼마전부터 진남포서향키네마에서는 진남포를 배경으로 하여리향(離鄕)이라는 조선영화를제작중이든바 이즈음완성되엿슴으로 제일회봉절을경성에서하고 제이회로 진남포에서 봉절하리라는바 림우(林優)군과 리영희(李英姬)양등이가담하여만흔이긔 늑끔고잇다고하며 상세는 아래와갓다고한다 (사진은리향의 한장면)

原 作=金仁善
脚色監督=林 唯
撮 影=李昌根
出 演=林 優
金逸春、李英姬、李永春、柳一葉、李 舜、金孤軒、鄭世榮



本社七檀 圍碁對局譜(十一)

丁奎春 / 先 高濟東



●一六五 庚의五 ○一六六 庚의八
●一六七 己의九 ○一六八 庚의三
●一六九 辰의十八 ○一七〇 丑의十七
●一七一 丑의十八 ○一七二 丑의十六
●一七三 寅의十七 ○一七四 己의三
●一七五 戊의二 ○一七六 午의九
●一七七 辛의九 ○一七八 午의七
●一七九 未의八 ○一八〇 巳의九
●一八一 午의十 ○一八二 乙의十一
●一八三 乙의十 ○一八四 巳의十八

蔡極文氏評

白은 丁의七 將構內를 黑에게 喪失함으로 癸의四 連將屬을 伐皮히 修補하고 黑도 散在各陣이 大索成隊하니 黑白雙方에 末端幾東이 殺 三四戶差異는 一端二端을 分明히 分揀하여야지 爭閑視하고는 아니될 急務이다 比較立場에 가하노라

유-모어小說 望夫石【十一】

金熊超 作·畫

개와고양이(四)

—사람을친다?

명례의생각에도 자기가 마질짓을 섯불리햇섯다。그러나 남편이 그처럼 자기몸에 손뎀을까지는 생각지못하엿다。결혼한지 잇해에 가진싸홈이 、엇지만 한번도 주먹싸홈이라고는업섯든까닭이다。

얼마나 올바로 귀때기를 마젓는지 머리ㅅ골속에서전기풍선도라가는소리가 웅웅하고낫다。

—자기는 굿센사나이 압호기야햇겟지만 코를 좀 쥐어흔드럿기로니 약한 여편네를처?

명례는 분하기보다 어이가업섯다。갓마저 얼떨떨한김이라아푼줄은 몰랏스나 방정마진눈물이 먼저 압흘서서 두빰을 뜻드시 적시고잇섯다。

—두억개는 왜이리 들먹어리나?

자기도 모를일이엇다。

—내가、사람이 못나서 이런게지!

비겁한눈치를 안보이느라고、가슴속에 힘을주고 벌떡이려나안젓다。무섭게 노리고보자한것이소사나는 눈물에 어려서그런지 남편의얼굴은 느려낫다 옴으라드럿다햇다。

『아-니 막된버릇을 배와가지고와서 사람을 이러케마구 치기요?』

날카롭게 하잿든 말ㅅ조차 밧은 목구멍에 걸처서 나와다가트니!』

『치면엇대。 천하에 괫심한것 눈이부리부리한 남편의이말이 더무서운호령이엇다。

『치면엇대?』

명례는 생각햇다。연약한손ㅅ가락으로 쥐어 흔드는것과、무지한 손바닥으로 치는것과는따저보면 등분이 다르다내가 장사변을 어더 살사람아닌다음에야 되로엇고 말로 줄까닭이업다!

『또한번 처봐요。얼골이 뒤통수로 도라가도록 어서처봐요』

차근차근히 시작할것처럼 누긋한말ㅅ소리엇다。

『치라면 못칠까?』

재호는 여전히 끌이 머리끗까지뻐첫나。

『그ㅡ기에 어서치란말이요 어서어서』

명례는 밧삭밧삭아프로나안젓다 얼마안가서 남편의턱을치밧칠것처럼 닥어드럿다。

『이게 정말죽고십흔가?』

재호 손두방가를손을 쩍버리고 한번울러메엇다。무서운시위(示威)엇다。그러나 기실도처를 얼루는 못내엇다。겁이나서? 아니 가엽서서。

『죽을 작정은벌—써햇서。자 어서처요』

명례의 따라케질린 얼골이금방 재호의얼골에 맛다을것가탓다。혀세 여하에맨하너는 정작 코를 무러뜨들것도가탓나。

재호는 두팔을 빼뜨명례를슬며시 뒤로미럿다。

『죽고십고말고』

『정말죽고시퍼?』

명례는 재호의두팔을 뿌리칠라고 버둥대엿다。

『도대체 웬기가나서 이지랄이야?』

재호는 성이가시엇든지 분명히 한풀죽은말ㅅ소리엇다。

『죽여주어요 말은 죽고나서할테니』

한쪽이 누구러지면 한쪽은이러나는법、명례는 기가 빠칠대로 빠첫다。온전한정신은 아니엇다。

—명례는 재호의팔을뿌리치라고 여전히 버둥대고、끄집어뜻고 하엿다。그러나 재호는샅샅 피하기만할뿐、그굿세인 장애물를 처치할도리가 업섯다。

『응!』

소리와함께 한딸을 덥석무럿다。

『아얏!』

재호는 눈에 불이 번쩍낫다 물린팔을 채처 보앗다。그러나 워악 입아구힘세게 물고 느러진판이라。아푸기만 더아퍼슬뿐이다。

『이 이 이걸 안놀테야!』

『………』

『아놀테야』

재호는 덕이떠러저라하고 한손으로 빰을첫다。그러나 살ㅅ점이 떠러지기전에는 안노흘듯이 모진 니빠리가 더깁히 살속으로 백엿다。

재호는 물린 팔만 압흔것이 아니라 온ㅡ이 다 저리고 땡기게되엇다。때리면 때릴수록더 압허서 그이상 손울댈 용기는 조금도 나지안엇다。

『정안놀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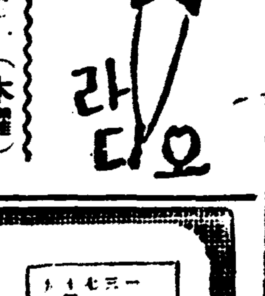
재호는 말로만 얼럿다。명례는 말대신 니빠리로 살을 질경 경하엿다 재호는 까무러칠지경으로 아펏다。

—아이 죽겟네! 항복무럼해놀밧게업다!

『잘못햇서 잘못햇。어서좀 노아주어』

재호는 자긔도모르는림에 항복을하고 지극히 애련한 목소리로 비럭다

라디오



十六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獨唱 金明姬 宋甫先 伴奏 鄭明軒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醱素와醱素의化合物(一) 養正高普 崔在禰

◇同八時 政務總監訓示(一)(全鮮農山漁村振興關係官吏) 講譯 田中德太郞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男唱羽調初數大葉 二、女唱羽界 三、男唱言樂 四、女唱羽樂 五、男唱編樂 六、女唱編 七、男女唱太平歌 李尙俊 安鏡仙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琴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五分 連續古談 女傑(一) 庚秋岡

◇同九時三五分 獨唱 安輔承 伴奏 金元福

十七日(金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제비가 二、樂遊歌 三、방아타령 四、도라지打鈴 五、青春歌 六、노래가락 玄山玉 細笛 高秉德

◇同一時 家庭講座 住宅과醫學(三) 朴吉龍

◇同六時三〇分 童話劇 이야기나라님 配役 王…朴橫植 侍女一…金貞玉 侍女二…柳喜壽 公主…李海淑 順貴…崔永淑 富者…金寶淑 富者의友人…金德煥 天道教京城少年會 指揮 朴義燮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醱素와醱素의化合物(二) 養正高普 崔在禰

◇同八時 政務總監訓示(二)(全鮮農山漁村振興關係官吏)講譯 田中德太郞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中獄中歌 朴綠珠 鼓手 韓成俊

◇同九時 連續古談 女傑(二) 庚秋岡

◇同九時三〇分 室內樂 一、三重奏曲…하이든作曲 (가)안단테 (나)프레스토 二、第二交響曲中…베-토-벤作曲 第二樂章라-르겐드 三、諸威舞曲그리-그作曲 피아노J·B·스루데니- 바이올린 朴明若 첼로 金仁洙

十八日(土曜)

◇午後〇時五分 流行歌(레코-드演奏)

◇同六時三〇分 少女美談 아름다운마음 李元珪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課外講座 醱素와醱素의化合物(三) 養正高普 崔在禰

◇同八時 講演 湯島大成節에參拜하고 朴淵祚

◇同八時三〇分 라듸오 드라마 女優宣傳株式會社 全一景 時代 現代 場所 어느빌딩의一室 ◇配役 女俳優A…李惠英 同B…河寶淑 同C…李順熙 同D…李希英 支配人…李昌赫 店員…鄭三天 給仕…崔石洞 新聞記者…金宇振 巡査…金一笑 라듸오드라마써-클 指揮 李 何一 効果 孫 哲

◇同九時五分 審遊歌外 一、審遊歌 二、朴淵瀑布 三、興夫歌 四、사발가 五、노래가락 中海中月 卜 金竹儂

◇同九時三〇分 獨唱 피아노獨奏 一、獨唱 (가) 나의햇빗 (나) 알로하오에 하와이民謠 二、피아노獨奏 伊太利民謠 (가) 오오에나를바리나 속삭이는솔나무 헨델作曲 三、獨唱 (가) 헨델作曲 (나) 달과시내의노래 헨델作曲 獨唱과獨奏 韓壽貝 피아노伴奏

病弱한主婦에

産前産後에!

喜谷 實母散

婦人良藥

母가 튼튼하면 애들도 또 健康할것은 當然하다。一家의主婦의病弱은 모든境遇에不幸이甚大함으로 健康한母親이라야健全한主婦다。喜谷實母散은 三百年間婦人에 苦惱한분들께歡迎밧고잇다。婦人들께病이엇다면곳喜谷實母散을服用하시라。

婦人病에
四肢冷感 足腰冷症 月經不順 經期腹痛 帶下症 子宮病 産前産後 입덧 脚氣浮腫 流産早産 頭痛眩暈 히스테리-

어머님健康은一家의힘

定價 一月分 二十錢 / 三月分 五十錢 / 七個月分 一圓十錢 / 十個月分 二圓十錢 / 十二個月分 二圓五十錢

本舖 喜谷市郞右衛門商店 東京·京橋一丁目

京城古蹟 小巡禮

舟橋와 龍鳳亭 ⑧

…湖岩

京 城東郊에 淨業院이 有名한것과가티 京城南郊에 龍鳳亭이 有名하다이만큼 龍鳳亭은 뚜드러지게 이름난 古蹟이다 그러나 龍鳳亭을 알려고 함에는 그 舟橋를 번저 알어야 하겟다 그러면 舟橋란 무엇인가 글자대로 배로노흔 다리다 그것이어대 잇섯는가 오늘날漢江人道橋가 곳 그것이다 가장 古典的인 舟橋의 架設하든곳에 가장 現代的인 鐵橋가 架設된것은 이 얼마나古今의激變을 말하는好對照이냐 時代相이 이

漢 江鐵橋에까지 反映하야 自殺과 情死에關한 事件이 頻繁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일즉 이곳에 架設되엿든 舟橋우에는 이러한 不祥事가 업섯고 때로 님검의타신 鳳輦이 濟濟하실뿐 이엿섯다 오늘날 鐵橋(人道橋)보담 녯날 舟橋가 실로 由緖깁흔 이야기거리가 된다。

至今부터 一七三年前인 英祖三十八年壬午때일이다 時派僻派의 論爭은 英祖와 世子사이에 反目을생기게하야 父王英祖께서 마츰내 世子를 木櫃속에 가두어

窒 息하야 죽게하니 이를 世間에서 뒤지東宮이라 뒤지大王이라稱한다 뒤지大王(思悼世子、追崇莊祖)이 悲慘한 最後를 밟으신것은 그아들님되신 正祖로서는 永久히 니즐수업는 悵恨事이엿스나 일즉 英祖께서 集重한禪戒가 게섯슴으로 正祖即位初에 뒤지大王의仇敵中에 數人을 誅戮하엿슬 뿐이고 그餘는 모다不問에 부쳣다 그러치만 父王을 追慕하시는 至孝의 一念은 遷陵에 對해서나마 孝先의禮를 다하려고 楊州拜峰山에 잇든 永祐園(뒤지大王陵)을

正 祖十三年己酉(一四六年前)에 水原華山(隆陵)에 遷奉할새 周代故事를본바다서 漢江에 舟橋를맨들고 그우로靈轝를 涉過케하엿다 舟橋의制는 大船七十餘隻을 가로連하야 배다리를 맨들고 그우에長板千餘枚를 깔고 平坦한道路를 닥근後 左右에는

欄干까지 設하엿슴으로 조곰도 危險이 업섯다 이것이 成例가되어 每年 陵幸時에는 반드시 舟橋를 架設하게 되엇슴으로 正祖께서 水原陵幸에 莫大한 經費를 要하엿다한다 正祖께서 특히

舟 橋의節次를 制定하사이에依하야 每年舟橋를 架設하게하고 이舟橋의事務를 專掌하기爲하야 舟橋司란 官衙를 設置하엿섯는데 이것이 高宗十九年에까지그대로 내려왓다。

이舟橋司의 近傍에 잇서陵幸時休息所로 正祖十四年(一四五年前)에 行宮을짓고 龍驤鳳翥亭이라命名하니 오늘漢江人道橋終點에잇는 龍鳳亭이 곳그날의 一部이다 이터는 본래宣祖朝右議政으로 壬亂時守城大將이 되엿든 李陽元의 別莊이엿든바

李 陽元의 號를 鷺渚라함은 이鷺梁에居住한緣由이다 鷺梁以後 그子孫이 世居하드니正祖께서 이터를 사서行宮을 지으시고 특히 옛날大臣의 舊莊을 아주淨藏식힌은 참 아름다운바라하야 鷺渚翁時의 事蹟一部를 保存케하도록 하섯다 그러나數十年前에 이르러 行宮의半部는 이미仁川水道局과 [illegible] 러들어갓고 그殘部는 高宗께서 俞吉濬氏에게 下賜하섯드니 그後여러번轉賣되어 某兩班의別莊과 龍鳳亭湧泉이 되고말앗다 有名하든當時行宮도 오늘날은 겨우

龍 鳳亭이란 이름이 一部에 殘存할뿐이요 옛날行宮의全貌는 아수現實界로부터 살아젓슴은 古蹟保存의 立場에서 볼때、얼마큼 遺憾이라 아니할수업다 當時舟橋와 行宮의 面影을 어렴풋이 엿볼에는 鷺梁津舟橋兼行宮圖가 잇다。

自由主義文學批判

自由主義沒落과 英文學 【3】

崔載瑞

라스킨의思想은 美에對한藝術家의憧憬과 社會正義에對한道德家의情熱을結合한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리스와 마찬가지로 藝術을거처서

社 會問題硏究로드러간思想家이다。 모리스는 藝術的美를深化하고 普及식히도록 社會生活을改造할必要를늣기고잇섯다。 이와마찬가지로 라스킨은 結局國民性의表現인文學이完成되려면 위선國民性부터淸淨할必要가잇다고생각하얏다。 그리고 國民性을淸淨하라면 社會生活의 모든것을 改造할必要가잇섯다。 享壽한技術은 自由롭고 愉快한職工에잇서서만(略)可能하다고 모리스는 가라첫다。 그리고

藝 術은 享壽하고 아름다운 社會的、政治的生活에서 發生할때에 비로소 享壽하고 아름답다고 라스킨은 가라첫다。

『藝術을爲한 藝術이 아니라 人生에 關聯된 藝術、個性과 및 國民性의 表現으로서의 藝術、産業이업는 人生은罪惡이고 藝術이업는 産業은 禽獸道이라 社會正義에 支配되는 世界가운데의 美ー 이것은 라스킨의 어느册이나를 들칠때에、우리가볼수잇는 思想이다。 그러나 라스킨은 決코

單 純한藝術은 안이엿다。 그는 그의師 카ー라일의 感化를밧어 깁히 푸라토ー를 吸收한思想家이엿다。 그는카ー라일과 마찬가지로 物質主義時代에잇서서 精神의 最高至上權을 絶叫하얏다。 그러고카ー라일과마찬가지로 賢明한統治者를 發見하고信認할 絶對的必要를力說하기마지안엇다。 그뿐만안이라 그는希臘思想을 硏究한結果 그들의經濟思想을 崇拜하게되엿다 푸라토ー나 제노ー폰이나 아리스토ー들의著述을보아도 알것지만 希臘思想에잇서 經濟學은決코

獨 立한 一個의學問은 안이엇다。 그것은 政治學의一部門에지나지못하고 또政治學이라면 政治的社會의道德的敎養을 다루는學問이엿다。 따라서 그들은 經濟學만을 分離하야考察할수는 업섯다。 그것은 倫理學과 關聯식혀서만 考察될것이엿다 웨그러냐하면 그들에잇서 經濟學은 各個人이 自己맘대로 使用할 目的 그自體로서의 富를硏究함이아니라 社會의各會員이 享壽하고 아름다운社會生活을 維持함에 必要한手段으로서의「道具의集積」을 硏究하는

學 이기때문 이엿다。 이것이十九世紀英國의 功利主義時代에 라스킨이 說敎하라고한經濟論이엿다。

라스킨은 임이야一八五七年에 正統派經濟學의 本바닥인만체스타ー에서 富力崇拜와個人競爭을 攻擊한連續講演을하얏다。 이講演을集錄한『藝術經濟論』은 라스킨의根本的 敎義를包含하고잇다。 그內容은 競爭代身에 協同을 擁護하고 國家敎育 國家使用

老 年과 勞働者의 國家扶養을 主張 함이엿다。

『支配와協同은 生의法律이고 無統制와 競爭은 死의法律이다。 生의法律을 準行하라면 勞働者는 軍隊와가티되지안어서는안이된다。 軍隊와가티訓練을박고 軍隊와가티指導를 밧지안어서는안이된다。』이가튼主張이 렛세페엘主義에 陶醉된時代에 衝擊을준것은勿論이다。 그러나 라스킨은 批評家들의非難攻擊에도 서슴지안코 一八六〇年에『最後의사람에게도』라는題下에 『經濟의 第一原理』를 唱導하얏다。 그는 이論文가운데서

經 濟學을道德化하야 政治學에 忠實히 奉仕하는從屬的地位를 賦與하라고하얏다。 그리고 政治學의目的은 라스킨에잇서선 善良한 市民을創造함이엿다。 이가튼 目的下에 그는 國家가 從來보다도 嚴格한行動의餘地를 차지하기를期待하얏다 國家는맛당이 法律과健康과風習과道德을 市民에敎育하고 政府工場을設立하야 權威잇고模範이될마한商品을製造하고 失業者를就職식히고 老年과不具廢疾者에

慰 安과住宅을 提供할것이라고생각하얏다 렛세페엘을慾바으로내조차라 그리면賢明한父權主義가 뒷門으로드러오리라! 賢明한商人은 自己몸에『自己部下들의 生活에對한 父親으로서의 權威와 責任이 달려잇슴을 깨다르리라!』

그리고 賢明한思想家는「다른多數人에對한 한사람의永遠한優越性을認定하고 또이가튼사람으로하야금 自己의 남보다나은智識과 남보다聰明한 意思에依하야 自己보다劣弱한사람들을指導하고

境 遇에따라선 强制하도록 함이 얼마나適切한가를力說하리라!』라스킨이나 카ー라일은 正確한意味에잇서서 社會主義者는안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가지點에잇서 어느地盤을準備하야 노흔思想家들이엿다。

漢詩

碧梧山人考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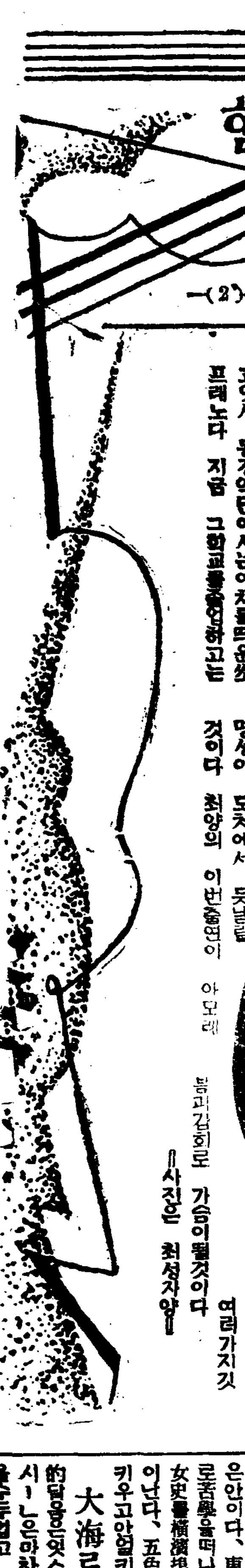
桃花 (選外佳作一)

元山 鄭鳳奎

艶香流動絳霞輕。
暖日東園眼忽明。
駘蕩春光千里海。
醉和仙氣九重城。
復含宿雨臙脂潤。
更帶晴暉錦繡成。
蓮臉櫻唇遊女伴。
相看哂笑不勝情。

故土訪問音樂會에 出演할

在東京朝鮮音樂家들의面貌 —(2)—



明眸의歌姬

쏘프래노 崔聖子 孃

★……조선에도 차차로 녀류음악가(女流音樂家)가 느러가는데 더욱이 나서악에잇서서 천재적 섬광(閃光)을 드러내는이가 속출한다 우선 방금동경 제국고등음악학교(帝國高等音樂學校)에 재학중인 쏘프래노가인(歌人) 최성자(崔聖子)양이니 이번고토 방문음악회에 그모던타입의 자태를나타내여 유량한 그음성으로 일반청중을 도취케할것이니 최양은방년이 이십 그의장래가 긴 우리들의 명랑한 쏘프래노가수다

★……서울서 근화(槿花)녀학교를맛추고 곳장 현재재학중인 음악학교에 입학하자 임이 동경악단에 그의천품을발휘하야 대단히촉망을가지고잇서 동경악단에서는이채를띄운쏘프래노다 지금 그학교를졸업하고는 물란서로건너가서 구라파악단의분위긔에싸혀그의 지대한 소망을 이루워보고자한다는것은 최양은 룸발서 민요(民謠)에 취미를 가지고 잇는까닭이라 한다 최양이한번 구라파를 갓다오는날에 그의 명성이 도처에서 돗날것이다 최양의 이번출연이 아모래도 오랜세월이지나지안코는 다시금 보지못할 처음가는 출연일것이다

★……최양은 음악예술에대한진지한 태도와 울정에대하야정확한것、또는 부드러운음성、또는 오페라 아리아에도 능수(能手)인것이 남보다 다른특증이다 이러한 조선악단의 보배로운 젊은쏘프래노 한번 최양이 고토방문의첫 출연에 얼마나 관중이 환호할 것인가 최양역시 미리부터 여러가지깃븜과감회로 가슴이뛸것이다

【사진은 최성자양】

創作過程에關한感想 (二)

—作品以前과批評—

金南天

그러케해서 이것은 二年前의 「미완한提言」을 다시 두번 나의손에들게하는結果를낫코말엇다。ー 그러면 이「二年間이나의體驗된 思」는엇더케해서 그始初에나의 마음에싸려왓스며 엇더케하여서 暴發되엿슬가? 또그「回國논數만흔批判과嘲笑의一齊射擊속에서서 달리고부다기면서 엇지하여 크다란魅力을가지고 맛치宿命的인 獨斷인것가티 二年뒤인 지금에도 나를붓들고 떠러지기를 실허하는가? 그것은 나에게잇서서는 藝術의수레바퀴인가?

이 모든 것을 事實

에歸하야 살펴보기로하자、왜어나하면 이것의觀念은 나로써는 多分히自傳的인要素를가진 敍述이되지 안을수업기때문이다。 이제 서는 모든點、모든缺點을 드러내노코實心을吐露하는마당을만들지안어서는안된다고 나는 내自身에게 假面無禮를爲한 勇氣의칼을쥐고 一節、論理를일코 熱情우에 몸을싯고저하는것이다。

×

나는그때 作品이야기를、서투루게、가장 拙劣한 手法에依하야「男便・그의同志」와「몸」이라는 두개의 小說로取扱한일이 잇섯는데 이것은爲先 當時의活動的인批評家 林和君에依하야嚴格한

批評의對象으로 俎上에

올낫다。 그는 이두개의 小說、特히「몸」에 對하야 解剖의 메스를들고 이속에는 階級的人間의 動物的인 生物學的인 側面만이 追求되여잇고 또 한개의 積極的인 一面이 描寫되여잇지 안이하다고 指摘하고는 이두개의作品傾向은 「工場新聞」의 作者로써는 至極히 遺憾을남기는 右翼的인 逸脫이라고 斷定하엿다。

나는 그의 批評의 全部에 肯定을가지고對하엿다。 그리고

나의作品傾向의

右翼的逸脫과 當時의나로서 가장못그런게생각되엿든 機會主義의 烙印까지를 나는 甘受하엿다。 그러나 나는 일즉이 取하지 못하엿든頑强한 態度를 表示하면서 林和의創作評에 抗議를 提出하엿다。

—「몸」의誤謬를指摘하는것으로 批評事業은 끗나지안는다 單純한作品上의指摘을가지고는 作家는그의誤謬에서救出될수업다 批評家는 「몸」의誤謬의根源을「몸」의作者의實踐에서 차저서

그것을解明하는

데까지 그의分析의칼을 앗겨서는안된다ー

이럿케해서 結論된獨斷이「批評과作品과 作家의實踐의 結合」이라는것 이엇고 이것을 思想的으로 保障식히기爲하야는 唯物辨證法에서『理論과 實踐의結付』라는 衣裳을 빌려왓섯다。 容易하게 想像할수잇슴과가티 이提言은 嘲笑에싸여서 그의姿態는 煙火의暴注속에埋滅될지경에 이르고마럿다。 或者는唯物辨證法의俗物化라고 비우섯고 或者는

批評이란作品에

낫타난것만을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이지 作家의實踐을말하는것은 안이라고 親切히가르처주기도하엿고 또或者는 實踐이라하니 넘어도지내친 實踐의濫用이라고ー베의맘과가티 批評家는 作家의私生活、綴 까지를 아는사람이야 다된다면는 批評家 資格이 [illegible] 까지를 取하엿다。

나의提言은 아모개에게서도理解되지안엇고 그것은

敎만혼觀念的인

獨斷이 스스로 가고마는運命의길」、다시 말하면 絶叫의 熱情의 瞬間的인 興溜에서 그대로必然의 冷却의길로 自滅하여버리고 그곳에 남은것은 寂寞을안은自我의 孤獨이엿다。 그러나 熱情은 降服하기를 頑强히 拒否하면서 끗까지 의여보겟다는 젊은野心은 두개의對立을使度로相剋식히고 이相剋과格鬪의 다음에 남는것을 고요히企待려보자는 殘虐한마음을 안게까지하엿든것이다。

唯物辨證法에서 빌려왓든 理論의完璧을 爲한衣裳이벗겨저도 理 [illegible]다。

文脈과論旨만을

보는批評家的인態度가 모든나의 文章을 獨斷의구렁이로 몰아 너머도옷다。 [illegible] 거슴이가 되여서울고 잇서도옷니、모든 못그려움 모든無限기 여기에서 敎斷되여라、나는 한낫 내가격를안고써든創作的過程、그것을餘計히追求하여 그곳에서 내의마음을차저보자고하엿든것이다。

×

「批評과作品과作家的實踐의結合과統一」이 獨斷에서

모든文句上難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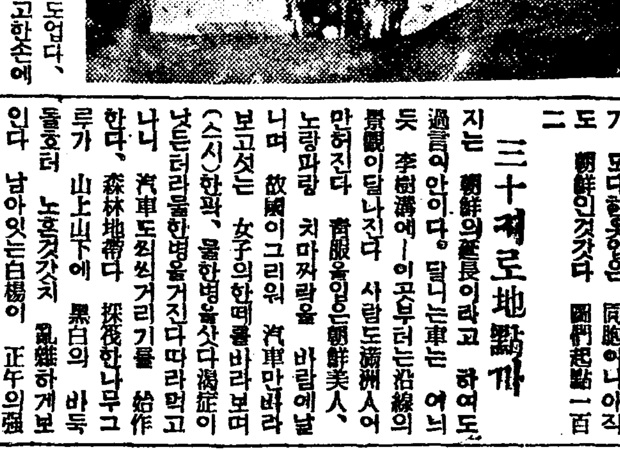
과論理的條件을通過하고 純化하야 이것이이야기된眞意가무엇가를차저보는것만이 두번째의提의提言」을理解케하는가장조흔行路임에門을여를것이며 이글의論理의理가 안이라 心理의論理를 엿보고 이提言에낫타난 한作家의意志的인 熱情에對하야 眞實로그릇되지안흔追求의 精神을가지는데 依하야만 問題는 보다 다理解의압흐로 前進할것이다。

—紀行— 北滿周遊記 (二)

方建斗

圖寧沿線의風景

京圖線의圖們과 濱綏線의寧北을 丁字形으로連繫하야 北滿의 心臟을뚤코나간線이 圖寧線이다 四月二十日 午前七時(朝鮮時間午前八時)빠라크 旅舍一室에 疲困이 들어든잠을 깨여、圖們驛에 到着하니 벌서폴래트홈에 乘客이 城을 일우어 압흘다투고잇다 하로에 單한번바께 가지못하는 牡丹江行汽車이니 無理도 안일것이다。 나도 이 時間을 노치면 하로 滿二十四時間동안을 空然히 보내야한다。 圖們驛長이 好意로 急히發行하여주는二等파스를바다가지고忽忙이車에올으니벌서車間은超滿員



이어그야말로立錐의餘地도업다、한손에 어린것의손을끌고한손에

移舍道具를든은

壯丁들、젓멕이를업고、바아지쪽 等을들은 젊은女子들은 北滿의 曠野에 新生을차자가는勇士(自由移民)들이어니와 나만은老人은 餘生이 얼마나남엇길내 이車를타지안이치못하얏든고? 哲學者가리보이는 無表情한 滿洲人、苦力의봇따리、長銃에도短銃을차고、戰鬪帽를 눌너쓴獨立守備隊兵、警乘員들이 눈에띄운다

「빼ー」덜컹덜컹

떠、國際列車의出發이다、驛構內外에는 無數한 餞送客이 手巾을 흔들고、허리를굽히고、눈을부빈다、出征兵士를 보내본經驗이업서서 그러한光景들으거니와 單純한停車場作別의 光景은안이다、東京留學時代에 米洲로苦學을떠나든 親友의누님 R女史를橫濱埠頭에作別하든 記憶이난다、五色의紙帶에 레푸로엽키우고안엇키운差異、曠野로가고

大海로가는形式

的닮음은잇스나 떠나는 瞬間의 시ー느은마찬가지다、避하야 걸을수두업고 眼鼻가 모를찌르는 멧個의車間을지나 간신히 안즐 자리하나를 發見하얏다、기ー다ㄴ 벤치가잇고 人字조케 누어잇는 紳士가 잇스니 여기가 아마 二等車間인가보다 지나는 車內賣室에게서 산F、B라는 담배 한개를 피우면서 車窓밖을 내다보니 나무업고、느릿느릿한野山、옷을잠게 쉬는 平野、農耕하는 힌옷입은農夫、十里에 한집、二十里에두집식 가는煙氣를 吐하는 오막사리집들이 파노라ー마 가티 지나간다、滅逃에 아직도 두려운 얼음이 잇스니 이곳엔언제나 꼿이피나! 嘎呀河、三道溝、新興、汪淸大荒溝等 驛일흠마는 滿洲냄새가 나고 異域의感이잇스나 그러나 沿線에 길가는사람、밧가는 農夫가 모다 힌옷입은 同胞이니아직도 朝鮮인것갓다 圖們起點一百二

三十粁로地點까

지는 朝鮮의延長이라고 하여도 過言이안이다。 달니는車는 여늬듯 李樹溝에ー이곳부터는沿線의 景觀이달나진다 사람도滿洲人이 만하진다 衣服을입은朝鮮美人、노랑파랑 치마짜락을 바람에날니며 故國이그리워 汽車만바라보고섯는 女子의한떼를바라보며 (스시)한곽、물한병을사서渴症이 낫는터라물한병을거진다따라먹고나니 汽車도쇠씨거리기를 始作한다、森林地帶다 採伐한나무그루가 山上山下에 黑白의 바둑돌흐터 노흔것갓치 亂雜하게보인다 남아잇는白楊이 正午의强烈한光線을바다 눈이부시게反射한다 老廟와老松嶺間은 險山峻嶺이다 山谷과山腹을 이리저리 되도라가며 루프式隧道가 두개나잇다、이곳이 圖寧線中第一危險한곳이라고 乘客들이 이권저권을 分忙이바라보며 수군수군한다 記者도마음이조마조마하야

구불구불돌아올

나온軌道를 내려다보다 暗黑世界九分間을지나니海拔一千八百尺이나되는老松嶺驛에다엇다 汽車도것은煙氣를들、嘆、吐하며 숨을쉬고 乘客도 모다 뛰여내려 숨을크게쉰다 이곳을分水嶺으로 汽車의당을집함을떨하 本格的으로滿洲의曠野가展開된다

馬蓮河、東京城、間은二荒無際의平野다 하날과山이다은것은보아서도 바다와蒼空이 水平線을 일우운것은보아서도 茫茫한平野와 灰色하날이 맛붓고 밧이랑에서太陽이도고 太陽이지는光景은처음보다 東京城은紀元五世紀中葉부터 渤海王朝의 首府엿든 땅으로 當時人口 [illegible] 고한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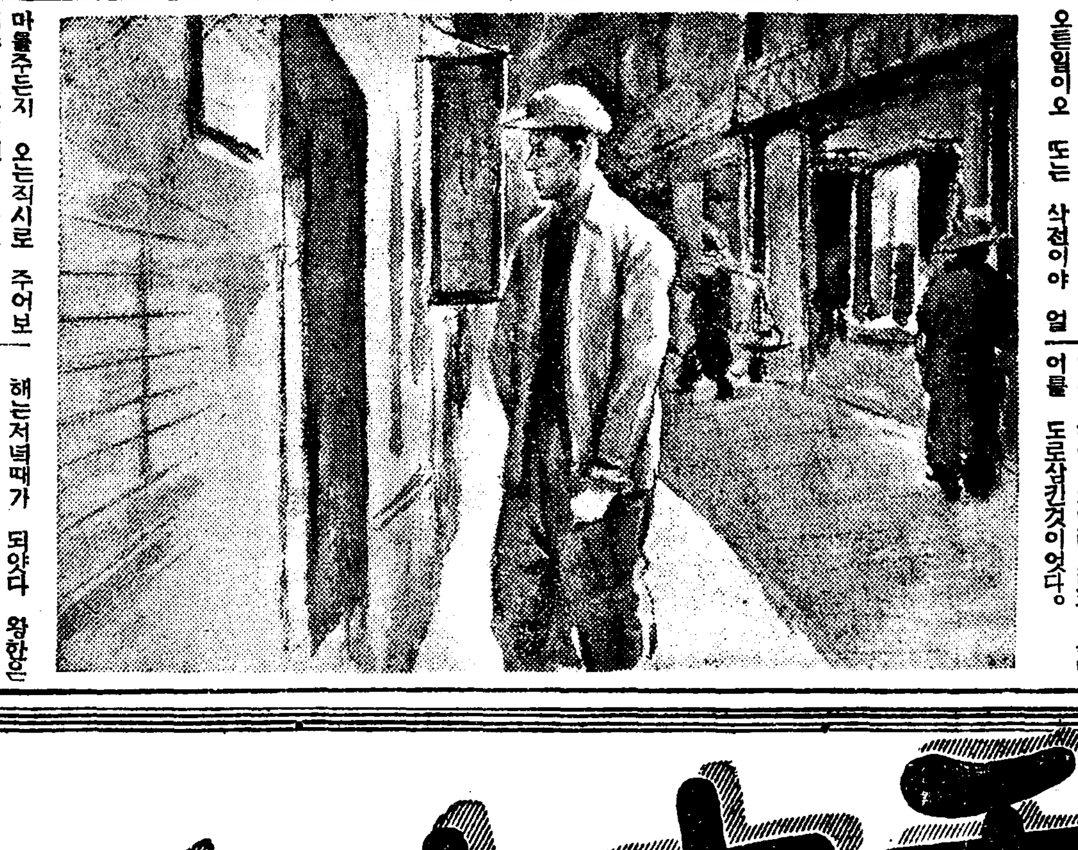
黑風 【33】

韓龍雲 作
金熊超 畫

구직 (三)

왕한은 그학생의행동을 보고서 너무도 불쾌하고 지나치게 흥분되야서 당장에 무슨일이 날뜻하얏다 그학생의 전후행동은 경위상으로보나 도덕상으로보나 사람답지가 아니하얏다 처음에 정거장에서 삭전을 작정한것으로 말하야도 다른사람들은 보통으로 이십전이나 삼십전을 주는것을 단칠전에 작정하얏고그것은 왕한이가 그러케라도 가겟다고 승락하얏슨즉 말하지 말고라도 삭전이야 얼마를 작정하얏든지 곳 정한곳으로 오는것이 당연한일인대 중로에서 세곳에들네어 딴일을 보너라고 두시간이상이나 지체하고 다른물건을 두가지나사서 처음에작정한 가방보다 곱이나되게 들녀가지고 왓스니 의례히 작정한 삭전이외에 얼마든지 더주어야 오른일이오 또는 삭전이야 얼마를주든지 오는직시로 주어보내야 오를터인대 아모말도 업시 다리고간 사람을 문밧게다가 한시간이나 세워두고 저혼저만 무엇을 실컷먹고나와서 본래정한 삭전만 주는바에 고이도 주지못하고 푸르르 던저주면서 그나마 특별히 인심써서 주는것처럼 말을하고 떠퍼노코 드러가는것은 어듸로보든지 사람답지안한일이오 더군다나 그학생으로말하면 인사를 모를만한 무식한사람도 아니오 당당한 대학생이며 그집으로 말하야도 돈푼을 더주고 덜주는대 관게가잇슬만치 구차한집이 아니라 가세로보나 다른 여러가지점으로 보아서 상당한 부자집이엇다 그런대 그러한사람으로 그러한행동을 한든것은 인격으로서 너무도 비열한것이오 남에게대하야 너무도 모욕하는것이라 더욱이 용서할수 업는것이엇다

왕한은 어려서부터 의협을조아하는 쾌한사내이엇다 게다가 사오십명의 장정을 한손으로당할만한 뛰어나는 힘을 가졋다 그리하야 길을가다가도 다른사람이、무리한일을 당하는것을보면 반듯이 바로잡어노코가는성격이엇다 왕한은 집에잇슬때에는 구차한까닭으로 궁주리고잇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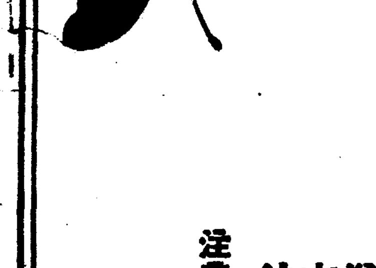
섯다 그리하야 그러한 왕한으로 이러한일을 당하기는 처음이엇다 왕한은 상기가되야서 벌금혼생각은 자최를감추고 힘업든 얼골빗은 붉거젓다 왕한이 몸은 치워서가아니라 분하야서 떨녓다 왕한은 만사를 주먹으로 해결하라고 하얏다 왕한으 그학생을 쪼처드러가랴하얏다주먹을 부르쥐고 대문안에 드러섯다 왕한은 별안간에 발불머추엇다 피리가리 나어가든 왕한이가 가제가리 뒷거름 첫다。 왕한이가 대문안에 드러서든순간에 무슨생각을 고、도로나와는가 왕한은 그학생의 일이복쾌하기는하나 그대지 큰일이아니오 또는 자기가 궁하야서직업을 구하는중인대 힘으로써일을저지르면 좋일굼고잇는 당장에도 리익이아니오 직업을 구하는장래에도 조치못한 영향이 미칠가하야 치미러오르든 불덩어를 도로삼킨것이엇다。

해는저녁때가 되얏다 왕한은 어대로든지 아니갈수가 업섯다 왕한은 그 학생이 던저주어서 땅위에 헛터저 잇는 돈 칠전을 살펴 보앗다 처음에는 분이나서 그돈을 보랴고도 생각하지 아니할뿐 아니라 이세상밧게로 내던지고 실흔든 것이다 그러나 나종에는 그돈이라도 가저다가 무엇이던지 사먹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얏다 왕한은 그돈을 한번보고 두번보고 세번보앗다 왕한은 그돈을 집으려가라고 할때에 공연히 용기가업고 부끄러워서 누가 보는사람이 잇는가하고 좌우를 둘너보앗스나 다행히 아모도업섯다 왕한은 빠르게가서 그 돈을 주어가지고 손에든채로 한다름에 그집문압을 버서나서 한길로나와가 한길에나온 왕한은 마치무슨 도적질이나 하야가지고 나온듯이 뒤로는 부끄러움고 압흐로는 시원하얏다

이것은 왕한이가 사회적으로 처음맛보는 쓴맛이엇다 왕한이가 분푸리를하라고 그학생을 쪼처드러가든것이 리상(理想)이라면 도라서서 돈을집어가지고나온것은 현실(現實)이엇다 그러면 현실은 언제든지 리상을 어기는것일까

「여보 여보」

하고 뒤에서 부르는사람이 잇



原料香水 (원료향수오리지나루향수)

オリヂナル香水 (오리지나루향수)

一瓶이 二瓶이된다 (한병이 두병이된다)

全額拂戾의大奉仕는 애용자제씨의 열광적환영으로 締切期日經過後도 每日每日 申込이山積합으로 감사의뜻을표키위하야

다시……

六月十五日까지 延期함니다

이후는절대로연기치안켓슴니다 이번〆切後의申込에對하야서는유감이오나 전액반환을안켓슴으로 그리아러주십시요

定價 大瓶 二圓 中瓶 一圓 小瓶 五十錢

몸에 땀이저저 오는 오늘날 오리지나루 한방울의향기는 여러분의 기분을가장 상쾌케 하여 줌니다

全額拂戾方法
애용하여주시는 오리지나루香水의 빈상자를左記本舖住所로 보내주시면 갓은갑엇치의 オリヂナル香水(오리지나루향수)를진정하옵니다

空函付送方法
空函에送料用으로써 大瓶인때는三錢切手四枚 中瓶인때는三錢切手三枚 小瓶인때는三錢切手二枚 를添付하야 封書(十五五다三錢切手貼付)로하야 郵送하여주십시요 한분께한개에限합니다

注意 販賣店께서의申込은絶對로謝絶합니다

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 東京市日本橋區本石町 香品部

第二次城津農組 被告全部에體刑
十四日淸津地方法院에서 言渡는오는二十一日

【淸津】 귀보=소화칠년오월부터 검거를개시하야 일시에백칠십여명의대량검거로유명하든 소연케하든 성진농조(城津農組)사건의제이차 허량복(許良福)외 오십사명에대한 공판은 지난십사일오전열시부터 청진지방법원법정에서 호전(戶田)재판장심리와 가등(加藤)김(金)량판사 배석 리(李)검사립회로 방청금지리에개정되엿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이제동공판은 피고오십오명의대공판임에도불구하고 일사철리격으로오일오후두시반에 검사의구형까지보게되엿다는데구형은 최고가사년 최하가이년이라하며 언도는 오는이십일일오전열시라고하는바피고의성명과구형은 아래와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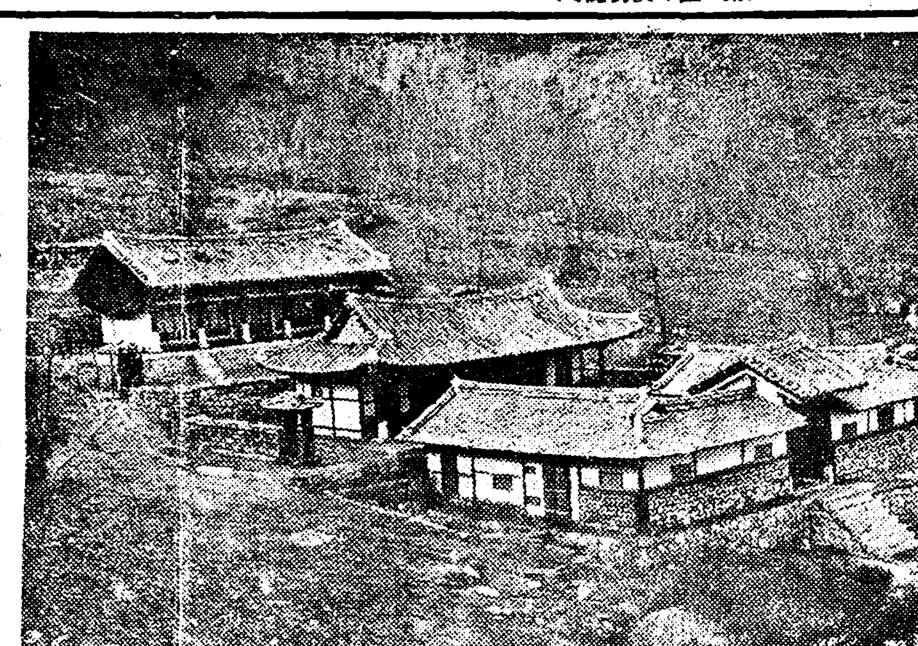
首犯許良福 四個年
李乙山 三個年
金吉城 同
許長城 同
崔漢甲 同
金今男 同
崔龍燮 同
李吉燮 同
金學龍 二年六個月
朴元錫 同
金元龍 同
崔周連 同
金和春 同
金五龍 同
金石山 同
金毛振 同
許龍俊 同
許柳山 同
許主白 同
崔應男 同
蔡壽成 同
尹在寬 同
趙鳳連 同
姜吉敏 同
吳京弼 同
林松鎬 同
崔景南 二個年
金俊甲 同
金忠燮 同
崔長龍 同
許周辰 同
玄金厚 同
崔金南 同
宋再赫 同
崔春鶴 同
崔鶴松 同
姜日龍 同
崔二俊 同
金良弼 同
金乙鳳 同
呂鐵山 同
玄得峰 同
黃鳳俊 同
黃學宗 同
朴貴南 同
鄭龍吉 同
金淳翊 同
鄭乙泰 同
林鶴相 同
金元福 同
梁泰弘 同
安金用 同
金小童 同
許長永 同
李炳益 同

卅餘借地人에게 土地明渡强要
借地人結束對策講究

【平壤】 편창식산(片倉殖産)에서는 평양부외신리(新里)에잇는토지 약일천칠백평을 금년상월에 매평오원팔십전식에 부내 류정(柳町)양현룡(楊玄龍)에게팔엇든바 양지주는 동리구장김석근(金錫根)씨외 수명에게 토지를명도(明渡)하고 가옥을철거하라는내용증명을발햇다 이것은 분명히 차지료(借地料)를 인상하려는전제라고보아 일정한차지인들삼십여명은 결속하여대책을강구중임으로 일대소동을면키 어려울모양인바 지주대차지인사이에서 분규가끗치지안는이때인데 압흐로의전개가주목되고잇다한다

原平公普校 學級延長運動

【永興】 함남영흥군호도면(虎島面)원평공립보통학교(原平公立普通學校)는 사학급제로되여잇는관계상 아동교육에막대한 불편을느겨오든중 해면유지간에는 유감으로생각하는바 작년상월분에 학급연장 긔성위원회를조직하고 위원삼십여명을 선출하야 활동을하야 오백칠십여호에대하야 매호당삼원오십전식 배당을 한외별도로 유지자에게의연(義捐)을모집중이라한다



最近竣工된 =白川世德祠=

【白川】 작년구월부터 백천조씨문 유림계의발긔로 총공비 만여원으로 건평칠십여평의순 조선식대건물을 웅장하게준공되비 이에는 도덕(道德)이숭고한 제선생의영령을모시고 현사회의문맹퇴치로 무산아동을교양하는 학원을부설하엿스며 일반민중의집회할만한 대강당이잇다는데 오는삼십일일에 관민유림이모히여 성대한락성식을 거행한다고한다 ◇寫眞…竣工된 世德祠宇

말성만흔長津에 氣候까지怪變!
新綠節에尺餘의積雪

【長津】 수전공사관계로인하야압날의 생계를 근심하여일반민심은 극단의불안을 가지고잇는이때에 긔후까지괴이하야 지난십사일밤사이에 나린눈이자를넘는데 이지음이비로 밧갈이 시작으로 지면이질면 파종할수업게되는데 이눈이녹고 다시습긔가증발할시기를 기다리랴면 파종긔가 느저질것임으로 농민들은크게 불안하야 무심한 대자연을 저주하는바 금춘에당한 이괴이한 긔후가발서두번채이라한다

甘雨가白雪化 處處에銀世界
新興의怪氣候

【新興】 십이일부터 나리기시작하야 십삼일에 멈추고십사일에다시 계속된 대망의비는 함남신흥군의 산간지대에잇서서는 돌연 때아닌백설로 화하야동상면과가튼 지대는은세계를일우엇스며 이로인한손해도 적지안호리라하야 일반은괴후에우려하는빗을보이고잇다한다

平南北에橫行하든 紙幣僞造犯被逮
南浦署連累者嚴探

【鎭南浦】 작년십월이래 평양、진남포를중심으로 평남북도김혼산간에까지 횡행하며사용한 조선은행권십원지페 위조행사한범인은 그후종적을묘하게감추어버리어각경찰당국에서도 필사의로력을다하여왓스나 아모단서를엇지못하고 방임태도를취하고잇든바 최근진남포부내에 다시위조지페가류통됨으로 형사대가 수사중지난십일일모방면에서 괴신사가사용하는 지페에 이상한점이잇서본서에 인치취조한결과 진범인인것이 판명되엿다는데 그는 본적을 대동군남곳면효남리(大同郡南串面孝南里)에둔 김엽혈(金○)로 평양모인쇄직공과 공모하여가지고 다수의지페를위조하여 널리사용한것이라는바 리면에는 공범자ㄷ 다수인모양이요 국제적 대규모의위조단(僞造團)이잠재하여잇는듯하여 엄중취조하는중이라고한다

江華南門修築

【江華】 강화번영회에서는 오래동안강화남문수축에 노력하여오든바 일반지의긔부로 총공비 륙백원에 강화읍내(邑內)문동소에새

江西地方에 紅疫이流行

【江西】 평남강서군강서면 하천리 하동(江西郡江西面鶴泉里下洞)에서는 약일개월전부터 홍역이발생하야 오륙세의아동이신음하고잇다고한다

地下金剛蝀龍窟 探勝團員을募集
本報陵谷支局主催

【陵谷】 본보릉곡지국에서는 오는오월이십오일을 긔하야평북묘향산에잇는 동룡굴(蝀龍窟)탐승(探勝)을위하야 탐승단을모집하기로되바좌기의 규정을참조하야 다수참가하심을바란다고한다

一、團員 二十人以上
二、旅費 十一圓
三、申請 五月二十日까지 (先金五圓添附)
四、出發 五月二十五日午後十一時 同二十七日午後九時二十二分歸着豫定

孟浪한迷信

【榮州】 요시음 음력사월팔일의 불탄긔념(佛誕紀念)로 [illegible]하야 향촌부인과 가정부인들이 [illegible]를 모아다이든바 금변의요리사[illegible]에는 영주[illegible]에 [illegible]여명의 부인구[illegible]이 모이엿다가 모조리유리[illegible] 한개식 무게식 가지고와서 공[illegible]지에서 [illegible]을 꺽거가지후 한청다리미트로 가서한[illegible]을 너간다한다 이제 [illegible]바에의하면 세고을(三[illegible])에서 나린[illegible]과 만리풍 쏘이돈을가지로 아이들을 먹이며장생을사한다는니 또는 혼령의에밧이된다는등 허무매량의말을듯고 그럿케 [illegible]또런왕래하는것이라고한다

下水道工事着手
五萬圓豫算으로 今秋에는全部完成

【鎭南浦】 진남포조선인중심지대인비석리(碑石里)룡정리(龍井里)일대는 하수도(下水道)가 불완전하여매년장마철만되면 침수가옥이수백호에 달하여 막대한곤난을밧고잇든바 금년도부예산에오만원의공사비를계상하여불일간공사에착수하리라는바 제일착으로역전(驛前)에서 진남포자동차회사압까지 륙백삼십미돌간에공사를필한후계속하여

一、龍井里元警察署前通六百米
一、碑石里新興派出所通七十卅米
一、碑石里、後浦里長老敎會前二百米
一、碑石里、柳橋通五十米
一、後浦里、鎭江樓前七十米
一、龍井町浪花館前七十米
一、碑石里天道敎前三百六十米

의순서로 금년가을까지는공사가완성되리라한다

永興도甘雨洽足

【永興】 함남영흥지방은작동이래로한발이심하야대소맥에피해가만심한든바지난십사일오후부터 감우(甘雨)가 나리기시작하야 아즉 계속중인데 우량은 대개흡족한모양이라한다

警鐘臺設置費 五百圓을喜捨

【[illegible]】 당지리회빈(李熙斌)씨는 경종대설치비로 오백원을 당지소방조에 회사하얏는데 씨는본래부터 명성이잇는 자선가로서 시민들은 씨의장거를 칭송하야 축하식까지잇섯다한다

南新一帶에는 鷄卵大의雨雹

【七坪】 지난십이일 삼시경후창군남신면(厚昌郡南新面)일대에는 소량의비가 날이드니 비끄레닭이알만한 우박이 나리기시작하야 겨우움돗는 곡초를나리처서 전멸을시키며 일시는 길가든 행재에 중상을 당하엿든바 피해를당한 농가에서는 다시 밧흘갈다고한다

메누리出奔에 六十老人妄發

【咸興】 며누리가 무단출가한것은 자긔집이흉가(凶家)인 탓이라고집에불을지르고 경찰서신세를진 무지의범죄=영흥군횡천면대평리(永興郡橫川面大坪里)김병보(金炳甫)(六七)는 원래재산가의아들로 태여나서 오십여년간을주색에빠저 지금와서는 무일푼의적빈한신세가되여 자포자긔한마음으로 의연술로세월을 보내여오든바 지난이월중에 장남창희(昌喜)의처 주화실(朱華實)이가하도산란한가정에 못견듸여무단출가한후부터는 더욱화가러나 이러케가운이불운한것은전연집탈이라고생각하여 지난사월팔일오후일곱시경에술이취하여집에돌아와서부억간에불을질러 집한채를 모조리태워버렷다는데 소관경찰서에서는 즉시방화범으로체포하여엄중취조끄테 십일함흥법원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

地方人事

▲吉田二忠氏(興南署高等係主任) 今般咸興警察署高等係主任榮轉人事次 本報興南支局來訪
▲尹熙再氏(前平昌郡守)通川榮轉人事次本報通川支局來訪
▲松木節□氏(金組聯合會平北支部長) 全朝鮮金組聯合會支部長會議出席次十二日夜上京
▲金秉河氏(碧潼郡內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碧潼支局來訪
▲鄭寶錫氏(羅南佈敎布敎所布敎師)新任人事次本報羅南支局來訪

그女子의一生
婚姻篇 春園 作 夕影 畫 【103】

「그럼 아버지도 생각하면 불상하시지」

하고 금봉도 옵바의 감정의전염을 바다 추연해진다。

「김서방이 어멈대신에 너를 안해로 달라고、이를테면 제 안해는 아버지가 가지고 너를 저를 달라고、바꾸자고 지랄이란 말이다。지금 아버지말슴이 그려시는구낭。이를 어찌하느냐고 저놈의 말대로 아니하면 집안은 망하겟고、그러타고 너를참아 그 놈을준다고 할수도 업공 그야 아버지란 사람은 저밧게 모르는 이긔주의자시니까 너를 김서방을 주고라도 콩밥을 모면하고도십것지마는 네게는 한번 손을 데이섯거든。아모리 자식이라도 부모 마음대로만 안 되는 세상인것쯤은 배우섯거든。그러니깐 걱정이란말야」

하고 인현은 조심성스럽게 금봉을 바라본다。

금봉은 얼굴이 따라케 질리며、

「그럼 옵바는 날더러 김서방녀석헌테루 시집을 가란 말슴이오?」

하고 대들엇다。

「그러기만 하면야 자키나 조아」

하고 인현은 싱그레 웃는다。

「웃긴 왜 웃소? 엇저면 옵바가 그러우? 언제는 날더러 다라나라고까지 그러시구」

하고 금봉은 톡 쏜다。

「그게야 네가 행혀나 조흔 사랑이 될까구 그랫지。손명규가튼 녀석한테 딸려갈 바에야 김서방허구 사는것이 조치아니하냐。김서방은 그래두 손가보다는 인간가치가 만커든。적어도 협잡군은 아니란말이다。정직한 로동자는 된단 말이다。정직이란것이 사람에게 제일 귀한것이어든。너도 인제 손가 허구 살아만 보아라、손가헌테 전염되어서 너도 협잡군이 되고야 말테니。어듸 안 그러케 되나 볼까。」

「그럼 일전에는 웨 내가 손선생허구 혼인한다고 햇더니 그러렴으나 그러셧수?」

「그럼 무에라구 허니? 벌서 다 작정해노쿠 나헌테는 보고나 하는것을 내가 무에라구 허니? 또 모두가 다 인연이구。인연이라면 운명이란말이다。네가 전생에게 손선생허구 무슨 미진한 인연이 잇던게지。무슨 크게 진 빗이 잇서서·그것을 갑하야만 되겟는게지。그러길래 너가티 제가 미인인줄도 알구、도고하기가 짝이업는것이 늙우리가튼 손가헌테 홀딱 반한것이 아니냐。도모지 보통인정으루는 상상할수업는 일이어든——금봉이가 손명규한테 반하리라구는、더구나 옛날가트면 상피라고는 아닌데 날 사제지간에、게다가 첩으로」

하고 인현의 말에는 독이 품겻다。

「첩은 왜 첩이야」

하고 금봉은 아픈데를 건드려서 항의하엿다。

「그럼 첩이아니구 여편네가 시퍼러케——시퍼러케는 못되나보더라마는 그래두 아직두 살아잇구——」

「본래 호적에두 아니 올랏다든데。그리구 벌서 친정으로가 버렷구」

하고 금봉은 어색한 제 변호를 한다。

「내가 다 알지——번히 알지」

하고 인현은 마치 금봉이가죄은 사람에게 말하드시、

「들어볼래。손가가 말이다。금봉이란 아가씨가 첨으루는 올것 갓지안쿠。보기실흔 여편네는 반낫 일키만 하지 도모지 죽지는 안쿠。그래서 무슨핑게를 꾸며서는 친정으루 쪼차버리구、그리구는 요새 협잡으로 돈푼이나생겻스니깐 아마제시굴 면서 긔녀석들 술잔이나 먹이구 이혼이된것처럼꾸며노쿠—설사 손가의 본녀편네가 알더라두 오늘내일하는판에 들구날것도 업게지 그야。돈들구난다손치더라두 친정 오라비녀석들 돈원씩이나 쥐어주면 고만이겟지。그런것은 그러케 중대문제는 아니다마는 네가 구태나 이러케 무더의몰인정한 손가한테 꼭 시집을가야할 이유가 어듸 잇니? 그부저한 수단으로 어든 돈푼이나 바라고 그러는가보다마는 사람이란 명업서서 못살지 먹을것업서서 못사는것은 아니다。—그러니까、다인연이지、인과야、운명이야。」

「그럼 손선생허구 혼인말란말슴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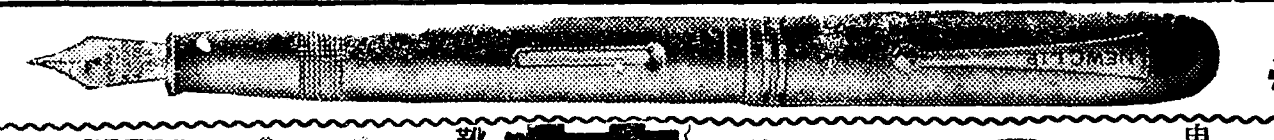
「그게야 내가 아니?」

「그럼 어떠커란 말슴이유? 사람을 간지리기만 하니。왜남의 말하듯 빈정거리기만 허우?」

「그저 한번 그래본게지。이왕이면 아버지 콩밥잡숫는것이나 면해들여서 효녀가 되어보앗스면 어떨까、하고 한번 너를건드려본것이다」

하고 인현은 마족한듯이 웃엇다。

定價一圓의萬年筆五萬本進呈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大產ー大販ー市價의半額

絕對全責任付不合返金換品

無比 靑年訓練總革靴 足三圓五十錢

鬼三枚底=總革學生靴

耐久絕對二個年以上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 總革フレンチ型

レフチン型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革靴大爆發的大景品付

靴一足에定價一圓의萬年筆一本式進呈 (最新インキ吸入式、一年以上使用할수잇는萬年筆)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四圓五十錢

中學生專用指定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深型靴 五圓五十錢

女學用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一足 金二圓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東五二二四(振替名古屋一七六)

胃腸에

SANKYO 三共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지아스다제

消化障碍를일으키신境遇에 本品이 嶄然一般アスターゼ의追隨를不許하는著効를가진것은 主로次의特色에依한다……
(1) 澱粉은 勿論蛋白脂肪其他二十餘種에達하는消化酵素를含有하야消化酵素中壓倒的優位에잇다。
(2) 茶.커ー피等으로効力이障碍되지안코食鹽·醬油는도리혀이것을增强케

三共株式會社

脚氣에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脚氣에對한オリザニン의効果를綜合하면……
(1) 食慾을增進하고 (2) 脈搏을減少하고 (3) 呼吸을減少하며 (4) 尿量을增加하고 (5) 血壓이上昇하고 (6) 數日에輕快함。더구나이原因療法임으로効果가確實하다。
オリザニン은 上記와如한脚氣에對한 決定的治療劑인 同時에人體必須의副榮養素이다……

オリザニン의補給에依하야
姙產婦는……姙娠嘔吐를防止하고更秘를除去 泌乳佳良하게된다……
運動時 에……[illegible]

……三共の藥品이잇다。所用잇는분은이新聞名記入申込하시면贈呈함

粉末·錠劑·液·エキス 注射液各種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朝鮮對滿洲及關東州貿易
出超로轉換活況
輸出激增、輸入激減

朝鮮과 滿洲와의 貿易關係가 年年注目되어가는터인데 이제 總督府發表에依한 四月中朝鮮對滿洲와 關東州의貿易은 合計가 一千百三十七萬九千餘圓으로 前年同月에比하야 約五十萬圓의增加를 示하얏고 그內容에잇서는 昨年四月中은入超百十七萬圓이엇슴에反하야 今年四月中은 二萬七千餘圓의出超로 轉換되어 前途가 期待되어잇는바 이가티好轉되어가닭은

▲輸出에잇서 今年四月은 五百七十萬三千餘圓으로 前年四月에比하야 八十四萬圓의 激增을 示하얏고 ▲輸入은 今年四月中은 五百六十七萬六千餘圓 前年四月보다 三十五萬七千圓이나 激減된데문이엇다

◎四月中朝鮮對滿洲國及關東州貿易額(單位圓)

輸出入品價額		今年	前年	增減(△)
輸出	朝鮮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外國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入超過		出超[illegible]	入超[illegible]	[illegible]

朝鮮產品 斷然首位 對滿輸出

四月中에 五百七十萬三千三百三十圓인데 이제이것을 產地別로보면 朝鮮產品이 三百二萬一千七百七十八圓으로 首位이고 日本內地產品이 二百六十一萬七千三百六十三圓으로 朝鮮產品보다 적기 四十萬四千四百十五圓이나 적어 朝鮮對滿輸出이 日本內地產品의 媒介的에 主要한것을두는것이아니오 朝鮮產品의 對滿輸出躍進을示하얏다 그리고 外國產品의 輸出은 六萬四千百八十九圓에不過하얏다

輸出重要品價額

品名	四月	比前年同月增減(△)
米及正租	[illegible]	[illegible]
朝鮮產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產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小麥粉同	[illegible]	[illegible]
鮮魚同	[illegible]	[illegible]
乾魚同	[illegible]	[illegible]
鹽魚同	[illegible]	[illegible]
乾貝同	[illegible]	[illegible]
乾鰕同	[illegible]	[illegible]
海參同	[illegible]	[illegible]
其他水產物同	[illegible]	[illegible]
砂糖同	[illegible]	[illegible]
淸酒同	[illegible]	[illegible]
麥酒同	[illegible]	[illegible]
醬油同	[illegible]	[illegible]
林檎同	[illegible]	[illegible]
其他果實及核子同	[illegible]	[illegible]
毛皮同	[illegible]	[illegible]
牛皮同	[illegible]	[illegible]
革類同	[illegible]	[illegible]
綿織絲同	[illegible]	[illegible]
綿織物同	[illegible]	[illegible]
靴下同	[illegible]	[illegible]
護謨靴同	[illegible]	[illegible]
帆布製護謨靴同	[illegible]	[illegible]
セメント同	[illegible]	[illegible]
鐵同	[illegible]	[illegible]
紙同	[illegible]	[illegible]
木材同	[illegible]	[illegible]
藥, 双同	[illegible]	[illegible]
其他諸品同	[illegible]	[illegible]
計同	[illegible]	[illegible]

輸入重要品價額

品名	四月	比前年同月增減(△)
內輸出品(外國產)	[illegible]	[illegible]
合計 朝鮮產 日本內產 外國產	[illegible]	[illegible]
粟	[illegible]	[illegible]
高粱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illegible]
蘿蔔參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其他의豆類	[illegible]	[illegible]
胡麻子	[illegible]	[illegible]
天日鹽	[illegible]	[illegible]
柞蠶生絲	[illegible]	[illegible]
製紙用펄프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銑鐵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豆粕	[illegible]	[illegible]
其他諸品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決定될米生產費
米穀統制上重要性
自治管理案實施如何分歧點
朝鮮影響所及甚大

▲矢島農林局長 談

外地米生產費調查會에 出席코자 渡東한 矢島農林局長은 알에와가티 말하엿다

九年度產朝鮮米의 生產費가 高價로된것은 委員會의 決定에依하야 日本內地의 生產費調查方法을 그대로採用한때문이다 米穀自治管理案이 今秋에 實施케되면 이번에 決定될生產費는 最低米價에依한 買上基準으로 되는때문에 重要性을 띄이게되고米管案의實施如何가 生產費決定東要如何의分歧點이다 어떠튼지 相當히 講論이 잇슬것으로 생각하는바 朝鮮으로서는 이되까지 主張을 貫徹할決心이다

▲朝鮮委員渡東＝外地米生產費調查會는 二十一日로 열리게되야 專門委員인 山澤總督府農產課長、石塚事務官은 委員會前에 열릴幹事會에列席키 爲하야 十五日 午後十時五分發 先發하고 矢島農林局長 田淵東拓理事兩委員은 十六日 午後三時發 渡東하엿다

政府古米處分決定
十五日米穀統制委員會에서
六七八年產五十萬石

【東京電話聯合】米穀統制委員會는 十五日午後二時 農相官邸에서 열고 山崎農相으로부터 一場의人事가 잇슨뒤 荷見米穀局長으로부터 最近의米穀事情報告를맛고 別項과가티政府古米五十萬石整理處分의件을 附議決定하고 四時 散會하엿는데 右整理古米는 六、七及八年度의內外地下品米로 二、三日中 賣拂日手續을 發表할터인데 이古米整理로 昨年의日本內地米買換의買人不足百萬石 買入은 當然히 行치안홀方針이라고한다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八弗七十二仙으로 二仙高 買二十八弗七十仙으로 二仙高

▲東京爲替(十六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五 買 二十八弗四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三 買 一志二片卅二分五
▲大阪爲替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九 買 二十八弗十六分十一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三 買 一志二片卅二分五

古米拂下로 各地期米暴落
但大勢엔別無大響!

古米五十萬石의 拂下決定으로今朝의期米는 東京三十六錢 大阪五十四錢 仁川三十五錢이 一齊히 暴落을 演하얏는데 右古米는 定期에는 緊치안호나 人氣的으로敏한 結果로서 其後다시 反戾大引되어 大勢的으로는 큰 影響이 업슬것으로 보이엇다

朝鮮銀行大會
明日銀行集會所서

第九回全朝鮮銀行大會는 十七日 銀行集會所에서 열러인데 그順序는 알에와갓다

午前十時 委員會(大會提出議案審議)
午後一時 開會
一、開會辭 加藤委員長
一、會長選擧
一、祝辭 兒玉拓相(代讀未定)
一、議事、報告
一、講演會
　大藏省銀行檢査官 大竹虎雄
　財務局長 林 繁藏
一、記念撮影
一、午後七時懇親會(朝鮮호텔)

米爲替少高

【京城十五日發聯合】十五日의

"米積載運賃割戾"
夏期도繼續으로決定

【大阪電話聯合】鮮航同盟會에서는 十四、五의兩日 大阪빌딩에評議員會를 열고 現地各支部長으로부터 五月中의朝鮮米積載新運賃의成績에對하야 報告를聽取하고 五月中의新運賃(公約率 大)는 十圓에十圓割戾를 附한結果 曾通率보다 二十圓低價로되는關係上意外良好한成績임으로 割戾는 今月中에限치안코 夏節에도 繼續키로 大體意見이 一致되엇다

高度資本主義目標로
朝鮮도產業調査會設置
◇今井田政務總監主唱으로

朝鮮의 產業은 鑛業、工業農業을 不問하고 全面的으로躍進할이 顯著한바 總督府當局에서는 農村振興運動을 相伴하야 研究中이다 그機關으로 總督府內에 今井田總監의 見解에 基하야 產業調査會를 設置하야 高度資本主義 內容을 目標로 趨進하라고 計劃中으로 이推移如何는 注目을 끌고다고 한다

東拓高利債借換

【東京電話聯合】東拓에서는 最高者 六分利債借換코자 拓務省에對하야起債認可를申請中이던바 十六日認可되고 興銀第百二十一回東拓債券總額一千萬圓의條件을 알레와가티 發表하엿다

一、利率年四分五厘
一、償還期限＝十二個年
但二個年据置後前年二十萬圓以上償還도는借換
一、申込期日＝昭和十年六月五日
一、引受銀行＝興業銀行、朝鮮銀行、第一銀行、三井銀行、三菱銀行、安田銀行、川崎第百銀行、住友銀行、三和銀行、日本信託銀行、

北鐵代償物資 綿絲八百噸積荷

【敦賀電話聯合】싸베트聯邦의駐日通商代表部買付 北鐵代償物資綿絲마니라로프 合計約八百噸은 十六日 午後二時 敦賀出帆의 歐亞連絡船 天草丸으로 積荷키로 되엇다 右中代償物資의 綿絲는 이번이처음으로도 다시 不遠第三次의出荷로 電氣 發動機等의 機械類가 輸出될터이라고

人絹聯合會
操短實施決定

【電通大阪電話】人絹市價를安定키爲하야 人絹聯合會에서는 操

智利硝石會社
日本產狀度販賣協定加盟

【東京電話聯合】日本化學工業의 急速한 進步發達에依하야 硫安와如함도 完全히 輸入國으로부터輸出國에 轉向되어 이때문에 世界狀度의 一手販賣會社인 智利硝石會社와 日本品과의 販賣競爭을 惹起하는中임으로 市價는低落의 一途를取하야 今回智利硝石會社에서는 日本에對하야 日本產狀度販賣協定加盟을 申請하얏다 日本當業者는 目下이對策에 對하야 協議中인데 輸出이 一定限度乃至地域的으로 制限될念慮가 잇슴으로 當業者로서도 依然態度를 決定할수업는事情으로今後狀度의市價如何에 依하야決定할 것으로 보인다한다

和蘭銀行利下
四分五厘를四分으로
白耳義도 利下發表

【電通암스텔담十五日發】四月初旬 깁다 貨의危機에 際하야 大幅利下를斷行한 和蘭銀行은 十五日危機打開後 最初의利下를 決定하고 公定割引步合四分五厘를 五厘내려서四分으로 改正하얏다고發表하엿다

【암스텔담十五日發聯合】和蘭國立銀行은 十五日割引步合四分五厘를 四分으로 내렷는데 同行은四月五日 三分五厘에서 四分五厘로 올리고 오늘에일은것이다

五厘低를斷行

【電通브랏셀十五日發】十五日白耳義中央銀行理事會는公定割引步合을 現在의 二分五厘에서 五厘를내려 二分으로앙을決定하고그 旨를 發表하엿다

定期積金中途 解約은無利子
貯金理事會에서決定

【東京電話商通】貯蓄銀行理事會는 定期積金의 中途解約에 對한利子는 支拂치안키로決定하고 不遠認可를 申請할터인데大藏省이 이것을許可할與否는疑問이라고한다

經濟界消息

○更生水利組合聯合會開催＝不良水利組合整理의中心機關으로 今回創立된更生水利組合聯合會는十六日 總督府第二會議室에 第一回總會를 열엇는데 今井田政務總監으로부터 一場의人事가잇슨뒤 豫算案其他의協議가 잇섯다고

○第八回三地連絡荷物事務協議會 第八回日本內地、朝鮮、滿洲連絡荷物事務協議會는 二十二日로부터四日間 滿鐵主催알에 東京에서 열고 鐵道省、滿鐵鐵道部、鐵路總局、北朝鮮鐵道管理局、朝鮮鐵道의各貨物關係者及日本內地 朝滿稅關員이 出席하고 荷物事務의連絡과 現場의實務에對하야協議가 잇슬터이라고

○朝銀支店長會議＝朝鮮에서는第九回銀行大會開催를 機會로朝鮮內支店長會議를 十五、六의兩日 本店에서 여는데 淸津以北、釜山支店長을 빼이고 支店長七名、加藤總裁以下 本店側重役、課長이 出席하야 加藤總裁司會알에 事務上 協議가잇슬터이라고

商況(十六日)

株式 保合裡에 少堅

前場强保 今前場은 倫敦銀塊暴騰이고 人絹高이라和

最後底込待! 『구로도』觀測

市勢는新規로 큰衝擊을밧기前에는 이대로轉換될것을 바랄수업서 東京市場客側이 總買인點으로보아도 한번最後的突込이잇서야만하겟고 東新百四十圓割소리가 나야만비로소 底入될것으로 好機勿失의買場이될것이니 東新百三十圓臺는無條件買에異議가업지만百四十圓이 안깨지고는 決코上轉을 바랄수업다는것이 『구로도』側의觀測이것가라야한다

떠러저야할理由 割高와客側買

一、昨年十一月半 恐慌時에比하면 雜株의太半은 거의그때의低價에 至한것이만으나 東新은아즉도 二十圓이나 高位에잇스니 雜株에比하야 割高觀이不去하는것

一、例의中野는 五萬株以上의買玉을가지고잇서 이것이禍根으로보이며 客側이總買이니 이것들의 整理가잇서야만하리라는것들의二大理由를보고잇다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產	四〇	五一	六〇、二七〇
東新	五〇	四七	九三、七二〇
大新	三二	五八	七八、五五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 二百九十枚

▲東拓殖產 八〇〇—七〇〇 ▲帝國火藥 [illegible] ▲東滿貿產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大同貨力 [illegible] ▲同新 [illegible] ▲川崎코무스 [illegible] ▲合同油脂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今朝新甫發會의市場은 株高金利低로 內國債五錢乃至十錢高로 米貨債五分半 五錢高 米貨債五分半 二十五錢高 六分半六十錢騰하야 新甫는好

今日財界(十六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三等米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在來 [illegible]
◆市中金融價
一斤價 一匁實 [illegible]
金 [illegible]
銀 [illegible]

◆株 (單位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鋼、白耳義銀行利下를듯고도 市勢에는何等의好感도업시 依然保合圈을不脫하야 强保合裡에底引 前場은東新百四十五圓六十錢、日產四十高인百四十九四圓四十錢 大新三十錢低인九十三圓四十錢에各大引되고 朝新二十七圓三十錢에 一本이엇섯다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少堅

後場은東新百四十六圓丁 大新九十三圓七十錢 日產九十四圓十錢 朝新二十七圓三十錢에少强寄後少堅裡大引

場面依然陰鬱 保合裡에底堅

世界危機이나 非常時이니떠들어 人心이明朗性을缺하고 모든것을 警戒하야 積極性이업는이때에 市勢가新甫에는賣하다가 떠러진채로 잇는만큼 目前一段反戾期하던 것도시원치안어 場面은陰鬱할 뿐이나 그러타고賣込하야크게利보겟느냐하면 그러치도안어日來의 市勢는閑散保合裡에도 底堅味가 잇는터인데 이保合이얼마나繼續 될지도어드로언지分岐를보일는지 重視되엇섯다

期米 拂下決定 瓦落

前場瓦落

昨後場 阪地三十圓三十五錢止와共히 二十七圓八十六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政府의古米五十萬石拂下發表로 依然買氣旺盛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八十一錢인 實로五十四丁의瓦落을拂하고 二十七圓五十一錢인 三十五丁低落으로場을始한後 阪地의反戾로 結局九十二錢에止場하얏을伴하야 六十六錢의最高로場을止하엿다

後場低弛

後場은二十七圓六十六錢에 同價始步後細刻이다가 五節五十七錢으로 弛하고 別個가리止場하다

▲甲五分利 一〇三七〇
▲一回四分利 九八、六〇
▲二回四分利 九八、六〇
▲佛貨四分利 一八五、五五

市勢不意瓦落 五十萬石拂下

這般以來 各地市勢는 弱한듯 하고도 强味를 添하야 殘存米發表의 比較的減少와 雨量의不足을 機로한 買物이 續出하야 昨日阪地는 三十圓三十九錢 當地는 二十七圓八十八錢인 近日의最高價를 示하더니 突然政府로부터 古米二百萬石中에서 五十萬石을 拂下하기로 發表함에 떨아買氣全허 萬殺되어 阪地는五十餘丁 當地는三十餘丁의瓦落을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買方 [illegible]

先합에至하엿다 勿論拂下로因한人氣가 軟弱할것은 찰아리當然하다고볼수잇스나 政府의拂下는 旣定事實일뿐아니라 五十萬石拂下의行動을 旣히一巡하엿다고할수잇슨즉 此以上의瓦落은期待키難할것갓다 時日이갈사록減殺의度를加하게될것이오 又는天災期가압헤隔在한今日에잇서 政府의拂下를唯一한 弱材로하야 賣崩할方針을 樹하지는못할것갓다今後果如何?

强弱彷徨時代
大勢靜觀必要

政府로부터 突然히古米五十萬石을拂下하기로發表함에 떨아各地가弃然一落을告하엿다此에서更히 低落하지는안는다 할지라도 어느程度까지 米價가昂騰하는때는 政府가 又復拂下를實施할것은 正則임으로買方의不安이업지안코 그反面으로는 바야흐로農繁期에 入하는此際에降雨가잇기는하엿스나 農家의갈망만큼뿐으로 그雨量이極히輕微하야 苗板의 發芽에非常한 打擊을與하고 麥作에도 惡影響이업지 아니하며 又는植付期가漸次臨迫한此際에잇서 將次用水不足의歎을免치못할今日의現象임으로 軟派의不安도 또한 업지아니할모양이다 그럼으로 今回政府의拂下를機로하야 賣方針만흠 株守할수도업고도政府의政策을 度外視할수도업슨즉 買方針만흘固執할수업다 그러한點으로보아서 當分大勢를 靜觀할必要가잇슬것갓다

堂島大關門割

【大阪電話】政府所有米五十萬石拂下發表에刺戟되어 永岡、山種外主力의 賣進으로低然寄付에五十四丁暴落을演하얏스나 其後田中貞外主力의 防戰買로手反氣味이엇다

賣方 永岡、山種、潮政、三木、海掘自己、地場正米側、朝鮮側
買方 神戶側、田中貞、上柳自己、地場株式側、東京側派

市場六感

株

市勢依然陰鬱로難伸 ▲東京東新이 今週初부터 百四十六圓臺를작구보이기는 하지만 前重한때문에거정 ▲大低價가 必有하리라고 肽談할수도업지만 前途에 期待가업스니 살생각이 안난다 ▲差請曾모양도 景氣를조케하기보다도 引縮해나가고저하는 모양인만큼 株에는好感이업고 이局面이打開되라면 ▲歐洲가 大混亂을演하야 日本이 크게有利케되든지日中親善이라는것이 完全히具體化되든지巨彈的材料가出現키前에는 ▲아만해도所謂큰市勢라는것은

米

바랄수업는것을단식할뿐 ▲구로도側은 最後의突込을기대리는모양인데 그리지도안는이市勢는어찌할작정인가 强弱을말하기조차실정이난다 ▲엇지로强氣를말한다할지라도 財政인플레가 四、五年더繼續될것이니 下値가維持되는程度이라고나할가? 市勢를積極的으로動케할材料야 어서出現하라 三年大旱에 甘雨一滴格

비가오기는하엿스나 雨量이不足하고 또 殘存米의 數字는樂悲相半이라 할수잇스나 悲觀의便이잇슴으로市勢는昨今堅實한 步調를帶하든中政府米의 拂下發表가俄然瓦落을 招致▲政府의 拂下發表가업섯든들 今朝의反撥을

免치못하엿슬것이다 絛陰時節에白雪紛紛함을 보아서▲果然麥作에도 影響이업지안켓지마는苗板에도 그影響莫大▲그러데 今後阪地五十餘丁 反落에對하야 當市場도 僅히 三十餘丁 反落、地場側의 買賃成을可知 ▲低落의 步幅이크나 적으나 拂下의行動을一巡하엿슨즉此以上의低落을難望 ▲그러나 政府는古米二百萬石中에서五十萬石을拂下하엿스니 남어지百五十萬石拂下도 結局實行되고말모양이니 買方의不安도不無 ▲그리고賣方으로서는 天候不順이 目前의嫌忌는하바이니 또한賣安心을할수업는일 ▲何如間 當分間大勢를觀望하다가見機而作하기만不如?

各地正米

京城下放

拂下發表와共히 定期의 暴落을보고 嫌氣賣物이 出現하얏스나 買人沈默으로取引

釜山弱含

市場出廻三千叺 拂下發表로 定期는暴落을演하얏스나 依然高唱으로 强味를示한 一方買方은 第二次三次의拂下를 압두고 極度로警戒하야 僅히四四四叺의取引이 잇슬뿐으로 氣配는二十八圓十錢 四等二十七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四錢

四等二十七圓十錢 一等白米十一圓 六十五錢

大邱反落

五十萬石拂下決定과共히 第二次三次의拂下를압두고 先低念慮가濃厚하고 特히 定期受米側의處分賣가 散見되나 一般으로 買鈍模樣으로 氣配二十錢反落인角丁三等二十七圓三十錢 四等二十七圓丁 一等白米十一圓三十錢

群山崩落

現着十二噸하야新規買物이豊富하나 淸算의 惡化와入荷의增大로 買氣가挫折되어 取引이잘되지안코 氣配는三十錢崩落을告하야 三等二十七圓六十錢 四等二十七圓四十五錢 一等白米二十圓四十錢

木浦引落

定期의反落으로 不安人氣가昂高되고 期米與急物이相當히 賣來되엇스나 新規買杜絕로前日에比하야 二十錢引落인 丸木三等二十九圓三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南浦無定見

期米가暴落을演하얏슴으로 賣方共히極度로氣迷하야 取引皆無의市場으로氣配無定見이엇다

仁川瓦落

殘存米 好感으로 相當히入注가잇섯스나 今朝는拂下發表로期米가崩落되엇슴으로 日本內地注文이 杜切되고 買人氣가多少잇서小口나마 賣應하고氣配二十錢下放인 丸仁三等二十七圓三十錢 四等二十七圓十錢 一等白米二十圓二十錢 이잘되지안코

金.銀.白金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郵送料先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 3939 振替京城 234

朝取取引員 [illegible] 玉

金融(十六日)

◆海外經濟 15日
◆朝鮮銀行券 15日
◆日本銀行券 15日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價入價
◆米穀(十六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十六日)

◆京城絲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지카코期麥15日 ◆豌油沖價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豌搾粕沖價
[illegible]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株式(十六日)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障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十六日)

◆朝取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期米取組
[illegible]